Story

APRIL 2019 Vol. 441

24

COVER STORY

서울흥인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에 마련된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가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덕분에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던 돌봄 서비스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리모델링된 돌봄 교실에서 흥인초 저학년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02

37

70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특별기획

02 **특별기획_ 우리 아이들, 마을과 함께 키운다**
04 학교돌봄 사례① 워킹맘 기고글
06 학교돌봄 사례② 명예기자가 전하는 '초등돌봄교실'
08 마을돌봄 사례①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흥인초'
10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12 마을돌봄 19만 명으로 확대… 지자체 우수모델 확산
14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17 해외의 돌봄 생태계 구축 사례

현장이야기

20 **꿈이 영그는 현장** 경기 광명북중학교
24 **삶과 교육** 공진하 한국우진학교 특수교사
28 **우리교실,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사회, 3월 민주주의 시작
32 **아하! 진로체험** 싱가포르 과학센터에서 국내 해양·우주과학관까지 교실 속에서 만나는 과학체험
38 **창업공방** 서울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박수빈·배선주 학생
40 **선생님은 연구중** 경남 양산희망학교_ 꿈키움 교사연구회

정책이야기

42 **정책N전망**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학생 건강권
44 **정책 토크** 학생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48 **교육부JOB**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신설, 교육 비리근절·신뢰회복 추진
51 **교육포커스** 미래 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54 **이슈**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개최
56 **대학교육**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 대학 평생교육체제
58 **꽃피는 교육자치** 광주 / 경남 / 충남 / 전남
60 **뉴스 브리핑**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外

정보이야기

62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64 **아이의 다락방** 환청이 들리는 아이
66 **교사상담실** 가깝고도 먼 학부모 상담!
68 **이야기 인문학**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70 **일상의 쉼표** 푸른 물결 머금은 노란 유채꽃의 땅, 삼척
74 **명예기자 리포트** 진원동초, '학생자치 우리가 만들어요' 外
80 **행복 게시판**

특별기획

우리 아이들, 마을과 함께 키운다

1-1_ **학교돌봄 사례①** 워킹맘 기고글

1-2_ **학교돌봄 사례②** 명예기자가 전하는 '초등돌봄교실'

2-1_ **마을돌봄 사례①**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흥인초'

2-2_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2-3_ **마을돌봄 19만 명으로 확대… 지자체 우수모델 확산**

3_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돌봄 공백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돌봄 서비스 받는다

4_ **해외의 돌봄 생태계 구축 사례**

범정부 차원에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가 1년을 맞았다. 학교돌봄은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기존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마을돌봄 역시 지역 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1년을 돌아보고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현장을 돌아본다.

서울 중구청은 관내 흥인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 3실을 활용하여 지난 3월부터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청의 모든 아이 돌봄교실1호인 이곳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학교돌봄 사례① 워킹맘 기고글

“돌봄교실아 고마워”

‘콩닥콩닥’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른 엄마들은 학부모가 되면 퇴사하고 아이만 돌본다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새로운 동네로 덜컥 이사까지 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닥치면 되겠지….

입학 첫날, 직장에서 잠깐 나와 입학식에 참석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첫날부터 시작되는 돌봄교실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돌봄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따스한 분위기에 마음을 놓으며 미친 듯이 직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소르르 떠오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초등학교 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돌봄교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휴직이나 사직을 선택한 주변의 선배맘들을 떠올리며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학부모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심히 두려웠습니다.

돌봄교실과 함께 시작된 초등학교 생활

하지만 웬걸? 아이는 입학 첫날부터 즐거워하며 돌봄교실로 뛰어 들어갔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 바로 이어지는 돌봄교실은 아이가 방황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이 아이의 성격,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 있는데, 엄마가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 선생님의 케어를 받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예상과 달리 어두운 표정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야간반 선생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저는 돌봄교실은 ‘보육’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보육을 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작품을 매일 매일 들고 왔습니다. 요가, 뮤지컬, 예술표현, 토탈공예, 안전교육, 창의활동, 한자, 속담, 종이접기, 클레이창작, 맥포머스, 보드게임, 아이링고, 블록놀이 등 다양한 활동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월간계획표를 보고 “아! 내가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가 돌봄교실을 잘 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다양한 활동 때문에 기질과 흥미가 다른 아이들이 돌봄교실과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앞집에 사는 아이 어머니는 휴직을 하여 아이가 돌봄교실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하교하는데, 돌봄교실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쓴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일찍 하교하는 친구를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면 워킹맘들은 퇴사의 유혹과 찢어지는 마음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자 감사할 선물이라는 것을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라면 모두 통감할 거예요.

즐거움 넘치는 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고민 덜다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달려가면, 돌봄 선생님께서 방과후학교 수업뿐 아니라 학원차량 시간까지 확인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챙겨줍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 저녁돌봄을 하는 친구들은 돌봄교실에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재미있게 놀고 있답니다. 방학 때에는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세종 아름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도시락업체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한다는 선배맘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있던 저에게는 천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늦잠 자는 방학기간에 깨워서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데, 도시락까지 싸야했다면 저 또한 할머니댁이나 친구네 방학 원정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날씨가 좋고 바깥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날이면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이끌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아이들의 얼굴에 만개한 웃음꽃이 귀여워서 엄마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만든 작품을 또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는데, 재료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매일 신나게 작품을 만들어 오는데,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름초등학교는 돌봄전용교실을 설계하였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서 돌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돌봄전용교실이 있다면 아이들의 작품도 전시해놓고 짐도 두고 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1~2학년만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된다면 맞벌이 부모들이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워킹맘을 대표하여 “돌봄교실 올레! 땡큐!”를 크게 외쳐봅니다.

12 세종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돌봄 사례② 명예기자가 전하는 '초등돌봄교실'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123 삼기초 돌봄교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캐서 만든 쑥버무리. 자연이 곧 배움이다.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한명희) 초등돌봄교실 1~2학년 6명의 학생들은 지난 3월 27일 돌봄교실에서 쑥버무리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오감만족 활동을 하였다.

요즈음 도시권 학생들은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삼기초 돌봄교실 학생들은 창의인성 학교 주변 탐색 활동으로 봄 향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쑥 캐기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가위를 이용해 쑥을 캐면서 신기해하고, 때로는 윗부분만 잘라져 잘 안 될 때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이어 쑥 향기도 맡아보고 깨끗이 손질한 쑥을 쌀가루와 버무리는 체험을 했다.

40여 분 찜기에서 익어가는 쑥버무리를 기다리며 박민오 학생은 "집에서는 쑥떡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며 기대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쑥버무리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떡이 만들어진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이들은 쑥을 캐며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조잘 나누면서 간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날 쑥버무리 만들기 활동으로 새 학기에 선후배 간 어색함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서로가 협동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글_ 김희숙 명예기자

2

3

돌봄교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조례초 돌봄교실

전남 조례초등학교(교장 유승재)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질 높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은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생 돌봄 시간에는 돌봄교실 연간운영계획서에 따라 집중력훈련, 신체활동, 아동 미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간식도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1~2학년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_ 박경은 명예기자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 학교생활에 큰 도움!

소안초 돌봄교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가장 큰 고민이다.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안심이 되는 제도이다.

경기 소안초(교장 장수열)는 수업이 끝난 후 1~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기 돌봄교실에 모여 앉아 종이접기, 블록 쌓기, 보드게임 등을 한다. 동화구연도 아이들에게 인기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1~2학년 아동의 경우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른 시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받아쓰기 시험은 문제가 없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눕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즐겁게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체득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도 일조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으면 한다. 글_ 조원표 명예기자

마을돌봄 사례①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흥인초'

학교 활용가능교실에 문을 연 지자체 직영 돌봄교실

서울흥인초등학교(교장 김경미)의 돌봄교실은 여느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학교가 아닌 서울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다.

학교의 돌봄기능 지자체가 분담하다

서울 중구는 관내 흥인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 3실을 활용하여 지난 3월부터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흥인초의 사례는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구 모든 아이 돌봄교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서울흥인초등학교 사이에 초등돌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의견차를 좁혀 간 끝에 어렵게 맺은 귀중한 결실이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이유정(교육복지담당) 주무관은 "지자체가 돌봄을 분담하면서 학교는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청은 예산절감을, 학부모는 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이 없어져 안전한 돌봄을 이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경미 교장은 "올해는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전담사의 계약 주체가 교육감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다."며 "구청에서도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컨설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서울 중구청 직영으로 바뀌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던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저녁시간 공백을 보강해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 아침 7시 30부터(방학은 아침 8시) 저녁 8시까지며 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사라지면서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

돌봄교실을 총괄하는 김소정 돌봄전담사는 "지난 2월까지 1~2학년생 50여 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는데, 올 3월부터는 돌봄을 희망하는 3학년생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3개 반에서 78명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중 10여 명의 학생은 저녁 식사와 더불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1 3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는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2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더불어 저녁돌봄이 이뤄지는 현장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이날 밥과 계란 뭇국, 삼치구이, 깍두기, 소시지 야채볶음, 오징어채와 토마토가 저녁 식사로 제공됐다. 식판에 한가득 음식을 담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저녁 만찬을 이어나갔다.

이민재(3학년) 군은 "지난해에는 중학생 누나가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4시쯤 귀가했다."며 "혼자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요즘엔 친구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함께 놀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학부모 만족도 높아

서울 중구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교실당 연 2억 3천만 원을 들일 계획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흥인초 돌봄교실에 지원한 비용은 5천만 원 수준이었다. 예산이 풍족해지면서 지난해까지 일부 유상으로 운영되던 돌봄 프로그램과 간식·저녁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고 돌봄보안관도 한 명 배치했다.

중구청은 흥인초 돌봄교실에 교실당 돌봄전담사를 2명씩 배치해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하였다. 그동안 돌봄교실에 입실하면 병원 외출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교문 밖 출입이 통제가 되었지만 돌봄전담사가 2명씩 배치되면서 학원 수강 등의 이유로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유기적으로 보살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독서, 놀이, 창의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결합시켜 차별화된 보다 내실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오후 3시~4시 20분경 오후돌봄에는 과학탐구, 오카리나(화·목), 메이커로봇, 토털미술을,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6시~7시 20분경 저녁돌봄에는 음악줄넘기, 뮤지컬, 미래직업, 종이접기, 3D펜 특강을 해오고 있다.

최연우(3학년) 학생은 "오늘은 특강으로 메이커로봇 시간에 가제트 팔을 만들었는데 나사가 풀리지 않으면서도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이는 기술이 포인트"라며 "특강 외에도 책을 읽거나 돌봄선생님과 만드는 활동이 무척 재미있다."고 말한다.

정나연(47) 학부모는 "돌봄교실 이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전한 돌봄인데,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어 2년째 매우 만족스럽게 이용 중"이라며 "특강도 과학탐구에서부터 악기연주, 만들기 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한다."고 설명한다.

서울 중구청은 흥인초등학교에서의 운영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청 및 학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내 공립초등학교 9곳에 중구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돌봄 기능을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지역공동체 뚤뚤 뭉쳐 '돌봄 공백' 없앤다

1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요. 마을 '엄마'가 돌봐주거든요."

경기 오산에 사는 박경애(37) 씨. 초등 자녀 둘을 둔 그는 요즘 아이들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가정과 직장을 오가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곳이 생겼기 때문. 덕분에 그만뒀던 일도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유치원 때는 종일반을 보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엔 돌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그렇게 일을 그만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등 돌봄교실이 있지만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 1~2학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던 터. 지난해 11월 문을 연 '함께자람센터'는 오산시가 운영하는 돌봄시설로, 입소문을 타고 초등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주변 엄마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됐다는 박 씨는 "학원에서 돌아온 뒤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곤 했다. 지금은 센터에 가서 탁구도 치고, 다양한 놀이도 한다."며 "집과 가까우니 놀이터 가듯 놀러 간다. 자유롭게 집도 오갈 수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반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돌봄 공간 마련

온종일 돌봄을 위해 마을이 나섰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과 조건, 환경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 유휴 공간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어주고, 지역공동체가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등·하교는 물론 급·간식 지원,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부터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을 추진, 학교돌봄을 넘어 마을돌봄으로 돌봄 생태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오산시 마을돌봄 사업은 지난해 7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된 후 더욱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말 오산 거주 7~12세 초등학생과 주양육자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쳤다.

노두양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 마을 자원을 투입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마을연계 돌봄 운영은 우리 지역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마을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돌봄공동체 의식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2

3

1 지난 3월 19일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 오산교육재단 학부모 참여 교육프로그램 '마술동화'
3 오산체육회 체육프로그램 '탁구'

함께자람센터는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사업의 일환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역 내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유휴공간에 조성해 집 근처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오갈 수 있어 귀갓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김려원 함께자람센터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학부모 신뢰가 높고, 돌봄교사 2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초기엔 정원보다 적은 아이들이 왔지만, 지금은 입소문을 타고 대기자가 생겼을 정도"라고 말한다.

돌봄전담팀 신설·조례 제정 등 지자체 역할 강화

현재 이용 인원은 28명. 취약계층 자녀 대상이던 그간 돌봄 시설과는 달리 대부분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주 4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마을공동체인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오산백년시민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공예, 중국어, 수학놀이, 탁수수업 외에도 보드게임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수학 등 교과학습 시간을 운영한다. 박춘홍 오산교육재단 교육협력팀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있다. 200여 명 가운데 38명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전문성 역량 강화 일환으로 20~40시간 연수도 진행한다."며 "마을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보듬고 있다. 돌봄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돼 정서적인 지지를 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현재 오산시 초등학생은 총 23개교 16,335명. 이 중 10%에 불과한 1,658명만이 아동 돌봄기관을 이용 중이다. 오산시는 올해 함께자람센터를 5호점까지 늘리고 2021년까지 30개소를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내 온종일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올 4월까지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돌봄 운영계획을 심의·자문하고 돌봄시설 간 연계와 조정도 하게 된다. 다만, 전담 인력 확충과 돌봄교사의 처우개선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노두양 팀장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마을돌봄을 위해 시설, 프로그램, 급·간식, 안전, 정보(온라인 플랫폼), 건강관리 등 다방면의 복합행정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을돌봄 19만 명으로 확대… 지자체 우수모델 확산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80억 원을 지원한다. 선도사업에는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이뤄지는 지자체가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마을돌봄을 현재 9만에서 19만 명으로 늘려 취약계층 중심 돌봄에서 보편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표 참조>.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3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돌봄 운영사례가 널리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표] 마을돌봄 확대

현재	• 9만 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향후	• 19만 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 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 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지자체가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에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

충남 홍성군 교육청·지자체 연계 돌봄센터는 충남도교육청이 교실을 제공(홍성초 1실, 홍주초 2실)하고, 홍성군에서 돌봄전담사 파견 및 운영비를 부담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 운영사례

서울 노원구 초등돌봄센터 '아이휴(休) 센터'는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1층이나 학교인근 일반주택 등에 돌봄기관을 설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을 지원한다. 방과후돌봄 이외에도 이른 시간 등교지원 서비스, 방학 중 밥상돌봄, 병원돌봄, 휴일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노원구, 북부교육청,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이꿈 누리터'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주민 공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꿈 누리터 1호점 개소('19.2.13)를 시작으로 12월말까지 27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돌봄 인력·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

전북 완주군 완주군은 지역 자생조직인 풀뿌리교육지원센터에 교육지원청이 전담인력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학교(고산초, 삼우초, 고산중)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행정 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는 지역 주민, 학부모들로 구성한다.

대전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10개교)과 지역아동센터(5개센터) 돌봄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를 통한 지역돌봄 서비스를 연계 활성화하였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를 통해 학부모에게 지역사회 돌봄기관을 알리고, 지역돌봄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확대·연계한다.

울산 울주군 울주군은 언양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활용가능교실 2실에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방과후 활동 전담기관 운영 사례

서울 도봉구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방과후돌봄을 책임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한다.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 전담 조직을 통한 교육·활동·놀이·독서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중심에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중심을 둔 활동 중심의 방향으로 돌봄 정책을 전환하였다.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돌봄 공백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돌봄 서비스 받는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부처별 돌봄사업,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 관리
온종일 돌봄 36만 달성, '19년엔 40만여 명 공급 목표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이다.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만0~5세와 달리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돌봄 공백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7.12.)에 의하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마을돌봄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돌봄사업이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처별 돌봄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즉,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으며 마을돌봄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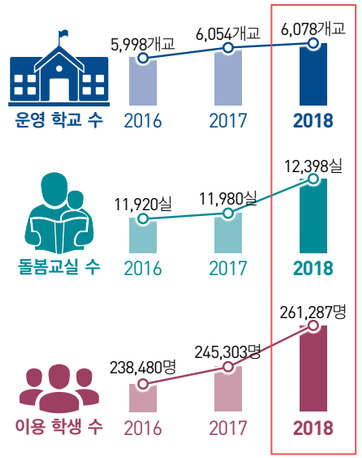
학교돌봄(교육부)과 마을돌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을 포함하여 2017년 집계에서는 33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오는 20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초등돌봄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시설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교내에서 양질의 돌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 등이 제공되어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초등돌봄교실 희망자는 2016년 24만 1,310명에서 2017년에는 25만 4,529명(1.3만 명 증가), 2018년에는 27만 6,029명(2.2만 명 증가)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부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목표치 25만 4천 명을 상회하여 12,398실에서 26만 1,287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림]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및 이용 현황



올해에도 돌봄 수요에 맞춰 차질 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1,500여 실을 증실·확충함에 따라 약 29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교실 확충과 더불어 기존 겸용 돌봄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 돌봄교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돌봄교실 환경개선도 이뤄진다. 이번에 확충 개선한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다양한 마을돌봄, 초등생 더 안전하게!

한편, 마을돌봄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100%)으로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4,107개소에서 11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9만 6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별개로 2017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17개소에서 320명이 이용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60개소에 총 1만 명이 했으며 이 중 초등학생 이용자는 5,300명 수준이다.

마을돌봄의 경우 2018년에 목표치 9만 2천 명을 상회하여 10만 1,600명이 이용하였고, 20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의 시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등록비율 40%까지 조정 등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11만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 대비 2만 8천여 명 초과를 예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 수립

돌봄 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처별 돌봄 기관 확충 현황을 파악·안내하여 학교나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연계·안내 및 돌봄 기관 현황 자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온종일 돌봄 '18년도 성과 및 '19년도 계획

구분		'18년도			'19년도		
		지원 방안	예산 (단위:백만원)	이용 인원	지원 방안	예산 (단위:백만원)	이용 가능 인원 전망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12,398실	21,000(국고) 301,137(지방비)	261,287명	13,000여 실 (증 1,500여 실)	21,000(국고) 363,126(지방비)	290,000명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	17개소	925	320명	167개소 (증 150개소)	10,635	5,000명
	지역 아동센터	일반아동 등록비율 20%	158,688	96,000명	일반아동 등록비율 40%까지 조정	173,122	100,000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0개소	10,037	5,300명	280개소 (증 20개소)	11,400	5,400명
합계				362,907명			400,400명

※ '18년 36만 명 달성, '19년도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계획 대비 2.8만여 명 초과 예상

[표 2] 부처별 온종일 돌봄 서비스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시행시기		2004	2017	2004	2005
근거법		초·중등 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대상		초 1~6학년	만 6~12세 미만	만 18세 미만	초 4~중 3학년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우선지원 (중위소득 150 % 이하)
지원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 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시간	학기	방과후~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	14~19시	방과 후~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	12~17시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계발활동, 특별지원 및 생활지원(급식지원 포함)
운영규모 ('18.)		12,398실 261,287명	17개소 320명	4,107개소 총 11만 명(초등 9만 6천 명)	260개소 총 1만 명(초등 5,300명)
'19년계획		13,000여 실(증 1,500여 실) 29만 명	167개소(증 150개소) 5,000명	4,135개소(증 28개소) 총 11만3천명(초등 10만 명)	280개소(증 20개소) 총 1만 명(초등 5,400명)

글_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해외의 돌봄 생태계 구축 사례

'온종일 돌봄' 기본 방향·가치 국민적 합의 필요

온종일 돌봄 정책은 여타 교육복지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내용 지원 중심의 정책이기보다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 내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돌봄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도 이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주체는 물론 수요자 간에는 '온종일 돌봄이 교육인가 복지인가', '온종일 돌봄의 핵심가치가 안전한 보살핌인가 교육활동의 연장인가', 이에 맞물러 '온종일 돌봄의 주체는 학교인가 일반 지자체인가 또는 가정인가' 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온종일 돌봄의 기본 방향 및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인 과제를 해외 방과후돌봄 정책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 및 가치 공유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은 자국의 고유한 정책적 배경과 교육 및 사회보장체제의 영향을 통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은 범죄로부터의 아동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초학력 보강, STEM교육 등 학력보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방과후돌봄과 같은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대상이 대체로 이주배경의 아동 및 청소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후돌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서 부모와 가정의 양육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 놀이와 휴식, 여가시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과후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전통, 가치관은 물론 각국의 사회 체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합의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이로써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이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활동에 방점을 둘 것인지, 여가시간을 활용한 특기적성활동에 방점을 둘 것인지, 혹은 이를 아우르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돌봄 주체
- 대한민국 :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상호연계·협력
- 미국, 핀란드, 스웨덴 : (중앙) 국가 수준의 비전 수립, 예산확보, 배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 중심축 담당

돌봄 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에 기반 연계·협력

우리나라의 초등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명칭과 프로그램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온종일 돌봄 정책을 통해 상호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연계보다는 중복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국가 수준의 비전 수립과 예산확보 및 배분은 중앙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체제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중앙정부 내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그 기반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돌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핀란드,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미국은 학교와 학교 밖의 구분을 지양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높고 기존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서 학교가 돌봄 생태계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정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계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방과후아동클럽(후생노동성 관리)과 방과후아동교실(문부과학성 관리)의 일체형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의 운영을 모두 학교공간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또한 학교공간을 활용하더라도 학교의 교사가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의 방과후돌봄 사례
- 방과후아동클럽(후생노동성 관리)과 방과후아동교실(문부과학성 관리)의 일체형
- 방과후아동클럽, 방과후아동교실 모두 학교공간 활용
- 교사의 방과후돌봄 관여는 선택사항이며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을 적극 공유하는 모델(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자체 연계)

단일 법체계 정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온종일 돌봄체계가 일관되고 연계성 있게 구축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이 가급적 단일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미국_ 범죄로부터 아동보호·학력보충의 역할
독일_ 이주민 대상의 사회통합 위한 언어·문화교육
스웨덴_ 양육지원 강조와 놀이, 휴식, 여가시간 중시
핀란드·일본_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온종일 돌봄 관련 법제는 교육 관련 법제보다는 복지 관련 법제(「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단일 법률 하에 통일된 법제로의 정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육 관련 법률 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진 핀란드, 스웨덴 같은 소위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교육복지 영역은 교육 관계 법령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육을 학습과 발달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교육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공적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하면서 교육 관계 법령에 방과후돌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사회교육법」으로 나뉘어 있던 근거 법제를 '방과후아동종합계획'에 따라서 「아동·육아지원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외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도 「교육기본법」의 한 조항으로 온종일 돌봄을 포함한 교육복지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방안이 새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 법제와 복지 관련 법제가 통합되어 단일한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면서 운영의 주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용,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에 큰 영향을 주어 그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초등돌봄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수요자들은 안전한 보호 등의 단순한 돌봄보다는 질 높은 환경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아동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핀란드의 사례, 놀이와 휴식을 중심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 결핍된 문화적 경험의 충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의 사례, 체험을 강조하면서 지역 평생학습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일본의 사례, STEM 등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이 아닌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방과후돌봄이 단순한 안전과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측면에서 우리의 온종일 돌봄도 해외 각국의 지향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본 원고는 "이희현 외(2019). 해외 방과후돌봄 정책 사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4월 발간 예정)"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힘.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방과후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글_ 양지선 기자

교육부·과기부 SW교육 선도학교 우수사례_경기 광명북중학교

찬밥 신세였던 정보 수업의 반란 참여형 활동으로 지식·흥미 UP!

경기 광명북중학교(교장 신운순)는 지난 2015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된 이후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SW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영재학급도 2016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이다. 보통 수학·과학영재학급 위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명북중은 SW교육에 방점을 두면서 차별화하고 있다.
정보 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과 운영 방식이나 수업 내용 구성에 대해 아직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교와 교사들이 많다. 광명북중만의 SW교육 운영 관련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매주 2시간, 시험 부담 없는 참여형 수업

광명북중 1학년 학생들은 매주 두 시간씩 정보 수업을 듣는다. 지난해까지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수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두 배로 늘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1학기는 정보 관련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을 중점으로 정보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토론 수업이 이뤄진다. 2학기에는 본격 실습으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만큼 정보 교과도 마찬가지로 시험 없이 서술형으로 평가된다. 권은숙(정보)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내용,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토론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작성한다."며 "점수로 평가받는 시험 대신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 교육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1 권은숙 교사와 정보영재학급 학생들
2 SW교육에 사용되는 교구를 조립하는 모습

현재 광명북중의 컴퓨터실은 두 곳. 선도학교 예산을 통해 2016년 컴퓨터실 한 곳이 추가로 개설됐다.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EV3 등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도 지원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장래희망 중 '정보 교과 선생님' 볼 때 자부심"

교과 시간 외에도 SW교육 관련 동아리, 영재학급, 특색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운영된다는 점이 광명북중의 특장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로는 RC카 제작 동아리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드론 제작 동아리를, 올해에는 스마트홈 제작 동아리를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모집하는 자율동아리도 매년 두 팀 이상 권은숙 교사에게 지도교사를 요청해온다.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더욱 탐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방과후수업으로 이뤄지는 정보영재학급은 교내 1~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두 번, 90분간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과정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본인이 연구한 산출물을 구상하고 전국 30개 정보영재학급이 모이는 산출물경진대회에 참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광명북중에서는 지난해 중고등부 부문 금상과 은상을 모두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의 흥미와 교사의 열정이 더해져 만들어진 값진 결과다.

권 교사는 "중학교에 입학해 정보 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신선하다고 평가할 때 교사로서 뿌듯하다. 특히 작년부터 영재학급에 지원하고 싶다거나, SW 관련 진로상담을 해오는 학생들이 늘어나 긍정적인 반응이 와닿았다. 학생이 쓴 장래희망 중 '정보 교과 선생님'이 있는 걸 보면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이 찡하다."고 말했다.

지역 연합 교육 캠프 등 특색 프로그램 눈길

광명북중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코딩 교실'과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가 있다. 지난해 신입생과 학부모 15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딩 교실에서는 자녀를 따라온 학부모가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수업은 코딩을 통해 햄스터 로봇을 각각 공격수와 수비수로 설정하는 과정을 익힌 후 미니 축구 대회를 열어 함께 대결하는 형식. 학생과 학부모가 너 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정적으로 키보드를 누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생소한 코딩을 게임과 접목해 흥미를 유발한 것이 성공 포인트였다.

본교 학생을 포함, 광명 지역 내 8개 중·고등학생 48명을

3

4

3 EV3를 활용한 영재학급 수업 시간
4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 현장
5 전국 산출물경진대회에서 쓴 발표 자료들

대상으로 운영한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에서는 SW교육이 생소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코딩 교육용 교구인 마이크로비트, EV3, 햄스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담당 교사의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졌고, 이후 팀별 프로젝트 수행과 발표까지 이뤄졌다.

권 교사는 "SW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SW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 시간이어서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 교과 인식 부족…홍보 필요성 느껴"

광명북중은 이제 SW교육 우수학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뒤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 담당 교사는 1~2명인 실정. 권 교사 역시 교내 유일한 정보 교사로서 SW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었다고. 권 교사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시험과 수능 위주로 교과가 편성이 되는데 정보는 여전히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컴퓨터로 딴짓하고 노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응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뒤집은 방법은 '홍보'였다. 컴퓨터실 앞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작한 결과물을 붙여놓은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과거·현재·미래까지 한 직업의 변화상, 일상생활 속 알고리즘 찾기,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윤리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꾸민 과제물을 전시해 주변 교사들로부터 "정보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 줄 몰랐다",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는 반응을 이끌었다.

5

권 교사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 사건"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어 "앞으로 교사연수 시 타 교과 선생님들께 정보 교과에 대해 많이 알려드리고, 학생들에게도 정보 관련 캠프나 체험학습 참가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SW교육에 대한 흥미도를 꾸준히 높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모아 영재학급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SW 교육을 펼치는 이른바 '멘토링 캠프'다.

권 교사는 "멘토링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배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지역사회에는 SW교육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NTERVIEW

광명북중 정보영재 4人 "SW교육 받고 진로 확신했어요"

광명북중 3학년 김동건·김민준 학생과 2학년 곽정은·정수연 학생은 지난해 정보영재학급에 참여했다. 전국 산출물경진대회에서 김동건·김민준 학생은 '시각장애인용 도우미 로봇'으로 중고등부 금상을, 곽정은·정수연 학생은 '척추측만증 예방 의자'로 중고등부 은상을 받았다. 이들이 영재학급에 참여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을까? 4명의 정보영재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원래 SW 관련 지식이 있었나요?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수상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영재학급을 통해 지식을 쌓게 됐고, 산출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참여했죠.

민준 초등학교 때 방과후수업에서 코딩 교육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를 배웠어요. 지식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SW에 관심이 있었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영재학급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수연 산출물 제작 과정이요. 요즘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문제가 많은데, 의자에 앉았을 때 목과 의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초음파센서가 이를 감지해 삐 소리를 내며 경고하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민준 저도 동건이와 시각장애인용 도우미 로봇을 제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VR 기기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관련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죠.

동건 시각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유용한 보행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초음파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감지할 때 경고음이 울리고, 터치센서로 버튼을 누르면 휴대전화와 연동해 비상 연락도 가능한 산출물을 만들었죠.

혹시 수업 중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수연 산출물을 만들 때 초음파센서 거리가 정교하게 측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어요. 올해도 영재학급에 지원했는데 한층 발전된 산출물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동건 EV3·마이크로비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해보는 건 좋았지만,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영재학급 참여가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동건 영재학급에 참여하면서 진로를 확신하게 됐어요. 해커의 공격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보안 전문가가 될 거예요.

정은 저는 천문학자가 장래희망이에요. SW를 활용해 망원경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별의 위치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민준 영재학급에 참여하면서 산출물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꼭 SW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기획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어요.

글_ 한주희 기자

공진하 한국우진학교 특수교사

“내 동화 속 아이들처럼 장애아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장애학생들이 동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장난을 좋아하고, 천진난만하며 꿈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다. 20여 년간 장애학생들과 동고동락해 온 특수교사가 그려낸 현실판 동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터운 ‘장애’의 벽을 넘어 순수한 아이 그대로의 모습과 만나게 된다.

1

2

1 공진하 교사는 동화책으로 장애의 벽을 허문다. 직접 쓴 동화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공 교사
2 공 교사가 담임반인 1학년 1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내 별명은 도토리.
걸어 다니는 대신 데굴데굴 굴러다녀서 붙은 별명이야.
모두 내 특별한 뇌 덕분이지! … (중략) …
아, 이럴 게 아니라 <도토리 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는 게 어때?
친구들이나 선생님처럼 이 조종 장치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 거야!

장애를 지닌 소년의 이야기 『도토리 사용 설명서』. 뇌병변으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유진’이의 유쾌한 시선이 동화책 가득 묻어난다. 아주 ‘특별한’ 뇌 때문에 손과 발은 물론, 혀를 움직이는 것조차 낯설지만 그래도 ‘내 거니까’ 좋다는 아이. 예쁜 선생님이 담임이 되길 바라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는 초등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즐거워하고, 친구와 놀기 좋아하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말이죠.”

저자인 공진하(48) 작가는 20여 년 동안 장애학생들을 가르쳐 온 특수교사이자 동화작가다. 서울 국립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가 개교한 2000년부터 그는 이곳 지체장애 학생들과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장애와 더불어 놀고, 배우며, 자라도록 하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교실에선 아이들이 많이 놀고, 노래하고, 그림책을 함께 보느라 즐거움이 가득하다.

20여 년간 장애학생과 동화책을 읽다

“오늘은 얼음 땡 놀이를 해볼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손뼉 치며, 책상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우쿨렐레 연주에 맞춰 몸짓하는 아이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감정은 쉽게 전이된다.

앞서서 『얼음 땡』 동화책을 읽어 주며 아이들에게 그림과 재미난 이야기를 꺼내 든 공 교사. 아이들과 놀이를 즐기기 위해 특별한 규칙도 세웠다. 아이들 목소리로 ‘얼음’과 ‘땡’을 녹음하고, 그때그때 버저처럼 누르도록 한 것. 몸이 불편한 친구도, 학습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할 수 있는 ‘얼음 땡’ 놀이로 서툴지만 조금씩 반응하는 아이들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그림책 놀이를 즐긴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걷고 말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장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게는 그중 하나가 동화책인 거죠.”

그래서 그에겐 아이들과 동화책을 함께 읽는 일은 중요한 일과다.

비장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게는 그중 하나가 동화책인 거죠.

장애학생이 동화 속 주인공으로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이 소용이 있나요?" 혹은 "아이들이 이해하나요?"라고. 공 교사는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곤 한단다. 계속 계속해서 읽어주다 보면, 조금씩 흥미를 보이거나 눈동자만으로 즐거움을 표시하는 아이들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학생들 읽기 자료로 쓰려고 동화를 구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 직접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동화를 공부하면서 책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학생들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지요."

때마침 읽던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는 그에게 큰 공감을 줬다. 발달장애가 있는 손녀 쿠슐라에게 그림책을 읽어 준 외할머니가 쓴 책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책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저자의 말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고 했다.

그렇게 2004년 처음으로 집필한 동화책이 『왔다갔다 우산아저씨』다. 9편의 단편을 엮은 이 책은 휠체어 때문에 우산을 쓸 수 없는 아저씨와 친구가 된 아이들의 이야기, 키가 작아 유모차를 타야 하는 수진이와 반 아이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천진난만한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장애를 바라본다.

'내가 쓴 동화를 읽으면서라도 장애 어린이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대로, 그렇게 장애 어린이를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서문에 밝힌 그는 "학교나 동네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들려준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쓴 현실판 동화

그렇게 시작해 바쁜 틈틈이 6권의 책을 출판했다.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벽이』는 다섯 살 때 열병을 앓아 장애를 얻은 재현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쌍둥이 동생 다현이와 자신을 '유리그릇'처럼 대하는 엄마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며, 방 안에서 벽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익숙해진 재현이. '벽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다가 차츰 한 걸음씩 밖을 향해 나오는 이야기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과 동고동락해 온 공 교사가 각각의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공감을 자아낸다.

3 우쿨렐레로 즐겁게 시작하는 1교시 수업
4 그동안 집필한 동화책들
5 등교한 아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공 교사

특히, 장애 아이들만큼이나 눈에 들어오는 건 그의 가족들이다. 『청아, 청아, 눈을 떠라』도 시각장애를 지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학급 알림 소식도 꼬박꼬박 녹음해 듣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근육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안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를 등에 업고 한라산을 등반한 사연들.

그래서 『청아, 청아, 눈을 떠라』에서는 잘 알려진 심청전을 심청이가 아닌 시각 장애를 지닌 아버지 심학규를 주인공으로 쓴 동화다. 불쌍하고 무능하게 그려진 기존 심봉사와 달리 여기서는 재능이 다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로 등장한다. 결국엔 아버지가 아닌 심청이가 '마음의 눈'을 뜨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결말로 맺어진다. '청이는 학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죄다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들잖아.'라는 문장에서 보듯 이 책은 심청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렇듯 동화 속 주인공들은 그가 가르치거나 만난 사람들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에 쓴 『도토리 사용 설명서』는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썼다. 책을 찾는 독자가 많지 않아도 '도토리' 한 사람만 재미있게 읽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특히, 놀이캠프에서 줄넘기하는 장면은 장애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하는 놀이캠프에서 아이를 안고 줄넘기했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

"남의 얘기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누군가의 삶을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여기거나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길 바라지요. 또래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려 사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화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이들과 꿈꾸는 '서투르지만 즐겁게'

88 서울장애인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너무 멋있어 특수교사를 꿈꾸게 됐다는 공 교사. 그는 아이들이 지닌 장애가 그렇게 멋있고, 훌륭할 수 있다고 믿는다. "거창한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무사히 살던 동네에서 어른이 되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 「어른이 되면」 영화를 찍은 장혜영 감독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란 노래는 그래서 그의 기억에 참 오래 남아 있는 곡이다.

"교사는 삶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 다닌 동안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은 교과서 속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투르지만 즐겁게 하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는 여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성의 경험으로 장애와 어린이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지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도 유쾌하고 즐거운 동화책을 쓰고 싶다고 말한다. 가장 최근에 낸 『우리 동네 택견 사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인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으로 말 걸기를 계속하고 싶다고.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장애를 갖지 않은 어린이가 다 같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는 작가이자 교사인 그의 오랜 꿈이다.

글_ 이상근 충북성화초등학교 교사

우리가 만드는 사회, 3월 민주주의 시작

민주주의는 학생들 목소리 높이는 과정

학생다모임에서 학생회 정책제안하는 학생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학생, 교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 '학교'이다.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나누며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에도 무수히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각 교실에서 또는 학년, 학교 차원에서 지켜야하는 규칙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각 학급에서 리더(대표)를 선출하고, 학교의 학생 대표를 선출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인다. 즉,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경험들을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수업의 한 과정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사회, 3월 민주주의의 시작'라는 주제로 3월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었다.

[국어] 삶 속에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배려와 규칙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학급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되면 교실에서는 학급약속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국어의 논설문 단원을 재구성하여 수업하면서 토론의 기본과 학생들의 실제 삶 속에서 서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배려, 규칙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내용도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쓴다. 그런데 학생들 자신이 쓴 글과 실제 삶 속에서 이뤄지는 실천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기도 한다.

[사회] 민주주의 꽃,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3월 프로젝트 수업에서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부분 수업은 사회 현대사 영역 일부분인 이승만 정권 당시 3·15부정선거와 4·19혁명까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만드는 사회' 주제수업에 넣어서 진행하였다.

이 수업 과정에서 배우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학생회 선거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되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치] 교육 주체로서 바로 서는 과정 '학생회 선거'

학생회 선거 방식이나 구성계획에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더불어 학생회의 권리와 책임도 높였다. 성화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후보자 정책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공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회 대표 선거 개표소

이런 준비를 마치고 토론회가 진행되니 후보자 상호 간 질문과 청중들의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우리 사회보다 더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학생들을 단순히 교사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지시해야 하는 '어린'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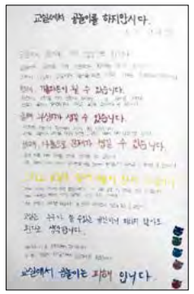
학생자치활동이 선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느 학교든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거제도에 따라 그 방향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성화초 학생자치활동 선거제도는 '팀-Mate제도'를 선택하였다. 팀-Mate제도는 회장, 부회장들이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으로 장점이 많았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선거 출마부터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당선 된 후에는 회장 개인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팀과 함께 공약을 추진하므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을 학생회의 계획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학생회의 권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월, 우리가 만드는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자

우리가 만드는 사회 수업

토론회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대표 선거 후보자토론회



국어 논설문
'삶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배려'

치활동이 변화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선거 제도를 바꾸고 당선된 후보들이 협력하여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생자치

3월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되고,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4월 2일 당선증 수여식과 학생다모임으로 '학생회 정책제안'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습이자 배우는 과정이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학생회'는 학교의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하거나 담당 지도교사가 시키는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임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이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자치 담당의 철학과 이해? 선생님들의 지원과 회의구조? 공동체적인 문화? 물론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권한이다. 즉,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한 '부서'와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학생자치 예산에 대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 권한이 있어야만 학생회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라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교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자세히 도움을 주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지도교사에게 의지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이 아닌, 담당교사의 '학생자치활동'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늘 이를 경계하여야 하며, 지금도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이다.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주인의식을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혹시 학교의 구조와 시스템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교사들은 어떠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에 달려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경험을 가진다면, 이후 학교 밖의 사회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안심하세요!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우리아이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해 집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보도 없는 도로로 다니는 우리아이가 걱정돼요!

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으로
통학로를 확보·조성하겠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17년 완료된 경기광주시 도곡초등학교

(학교 밖)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 중 986개소(54%)의 구간에 대하여 학교부지(담장, 축대 이전 등)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을 검토합니다.

아이 혼자 걸어 들어갈 교문,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교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보행로·차도 구분이 없어 상충위험 → 학교내 보행로 구분과 시선유도효과

(학교 밖)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교문 출입구에 **차량과 학생 간 동선을 분리**하고, **주차구역과 겹치는 학생 보행동선을 개선**하는 등 **학생 안전을 강화**합니다.

우리아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에서 내렸는지 궁금해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2018년 500대 ▶ 2019년 1,200대

또한, 전체 통학버스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과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은 안전! 학부모는 안심!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_ 박은주 명예기자(단국대학교 전임연구교수·공학박사)

자~ 떠나자, 과학체험 속으로

싱가포르 과학센터에서 국내 해양·우주과학관까지

1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한 해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싱가포르 과학센터(Singapore Science Centre)와 국내 주요 과학관을 둘러보았다.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4개의 공용 언어를 사용하며, 모든 연령대에 흥미를 유발하는 과학쇼 프로그램 등 놀이형 체험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과학관 프로그램이 즐비하다. 특색 있는 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의 과학체험 속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보자.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몇 없는 도시국가 중 하나이다. 2017년에는 한해 전체 1,742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고 그중 63만 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현지인 및 해외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1977년 12월 10일 당시 싱가포르 과학기술부 장관 토흐친차이(Toh Chin Chye)의 주도로 개관된 후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였다.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과학은 수백만 명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비전과 '상상력이 풍부한 즐거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 학습 및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싱가포르의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4가지 핵심가치로는 '열정', '혁신', '전문성', '품질'을 실천하며 싱가포르의 공식 교육기관으로서 과학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3

싱가포르 과학센터 주요 프로그램

싱가포르 과학센터에는 과학, 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1,000개 이상의 양방향 전시물이 전시된 체험 중심의 전시실이 14개가 있다. 센터는 또한 학교의 공식 과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풍성하고 재미있는 행사, 대회 및 봉사활동 등 폭넓은 범위의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의 상시 운영 테마로는 생명윤리, 기후 변화, 지질 탐구, 가상현실 체험, 일일 과학자 체험, 천문 관측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프로그램을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발전의 진화를 위해 독특한 관련 전시 및 쇼를 통해서 과학적 관심과 지식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수백만 볼트의 고전압 발생장치를 이용한 테슬라코일 쇼(Tesla Coil Show)와 자연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인 화염 토네이도를 특별한 장치 안에서 600도가 넘는 불기둥 소용돌이로 재현하는 화염 토네이도 쇼(Fire Tornado Show)가 있다. 안전 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쇼는 과학 해설가의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전 연령대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열정적인 해설로 청중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쇼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단위 또는 연인, 친구들로 구성된 청중의 웃음소리가 넓은 홀 안을 가득 메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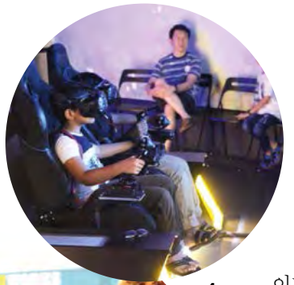
싱가포르 과학센터의 인기 비결

1. 해외 여행객들의 관광코스로 안성맞춤

싱가포르 과학센터를 방문하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온 어른들은 실내가 시원하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신기한 체험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높은 과학센터를 찾는다. 싱가포르에는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네 가지 공식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공용어로 영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관광지에는 모든 안내문이 영어 및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인원이 한 해 100만 명이나 되는 것도 곳곳에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 신나게 체험을 즐기던 모자에게 싱가포르 과학센터 방문 소감을 물어보았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루카(11)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과학박물관에 갔었는데, 싱가포르 과학

1 싱가포르 과학센터 전경 (사진_ 싱가포르 과학센터 제공)
2 테슬라코일 쇼
3 화염 토네이도 쇼



4 가상현실체험
5 센터를 방문한 해외 여행객
6 센터 내 기후 관련 전시관

센터처럼 독특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테슬라코일 쇼와 레이저 미로가 특히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루카의 엄마인 니콜(43)은 "물리학을 전공한 만큼 과학에 관심이 많아 미국의 많은 과학관을 가봤죠. 싱가포르에 여행 와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과학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저도 독특한 경험을 했고 아이가 특히 흥미로워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재방문 하고 싶어요."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전 연령대의 흥미를 유발하는 과학쇼 프로그램

싱가포르 과학센터의 과학쇼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청중이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과학현상을 보여주고 과학원리 설명을 하는 관람형 쇼가 아니라 청중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되는 일종의 마당놀이 같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테슬라코일 쇼, 화염 토네이도 쇼는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진행자는 과학쇼 중간중간 청중 지원자를 모집하여 쇼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청중은 한마음이 되어 과학쇼에 참여하는 지원자를 응원하며 과학쇼에 몰입하고 과학쇼는 흡사 축제의 장이 된다.

테슬라코일 쇼를 진행한 멜리사(과학 해설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쇼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구성원 중 어른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형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형 체험프로그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형 체험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싱가포르 과학센터는 꾸준히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3. 지속적인 설문조사로 프로그램 관리

싱가포르 과학센터 내에는 두 가지 명소가 있다. 먼저, 싱가포르 유일의 IMAX 돔 극장인 옴니 극장(Omni theatre)은 5층 높이의 돔 모양 화면으로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한다. 매일 6차례 상영을 하며 영상 주제는 시즌마다 교체된다.

열대 기후인 싱가포르에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스노우 시티(Snow city)는 싱가포르 최초의 상설 실내 스노우 센터로 2000년 개관했다. 영하의 실내 환경 속에서 멸종 동물 조각상을 만나고, 스노우 튜브를 타고 눈으로 뒤덮인 60미터 경사면을 썰매 타듯이 내려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과학쇼가 끝난 후 청중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서 청중들의 고객만족도 설문지 작성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향상 및 개선에 대한 노력과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테마별 과학관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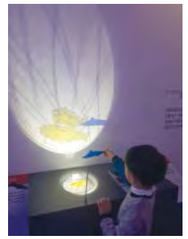
국립부산과학관

국내 과학관에서도 다채롭고 이색적인 체험형 과학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부산과학관은 2015년 12월에 부산 기장에 개관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에너지, 방사선의학을 주요 테마로 한다. 91%의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 체험관이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상력으로 그린 미래 자동차를 있는 그대로 구현하여 어린이들이 소개하는 세계 최초의 키즈 모터쇼인 '제3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를 기획 전시 중이다. 본 행사는 2월 22일~6월 2일까지 (9:30~17:00) 국립부산과학관 1층 김진재홀(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 051-750-2300)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13~14일 이틀간 과학관 중앙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과학체험과 문화행사 등 과학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학생,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과학축제를 운영한다. 학교(기관)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75개의 체험 부스와 각종 과학문화 공연 및 과학 강연이 펼쳐진다.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자기부상열차의 탑승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전자력의 힘으로 레일 위를 떠서 가는 열차이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는 8.8m 상공 위를 달리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서 국내에서 저속구간에 적합한 도시형으로 개발된 열차로서 탑승체험 및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조정체험도 가능하다. (문의 : 042-601-7894)

국립해양박물관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 영도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은 물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국립해양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이며 별도 예약하지 않아도 체험할 게 많아 아이와 함께 부산 여행한다면 빼놓지 말고 방문할 곳이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내 해양도서관에는 해양 관련 역사, 과학, 문학 도서 및 DVD 등 해양 관련 모든 분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051-309-1900)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우주에 관한 기본원리,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등을 테마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으로 32종 작동체험 전시물을 포함한 총 90여 종의 전시품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관을 비롯하여 기획전시실, 3D 입체영상관, 4D 돔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 우주과학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실제 발사되었던 로켓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는 과학관으로서 우주과학 관련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과학관이다. 우주과학의 기본 원리와 로켓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나로호 만들기, 풍선 로켓 만들기, 자유 과학교실 등의 우주과학교실 주말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으며, 2박 3일의 우주체험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5월 3~5일 3일간 2019 고흥우주항공 축제기간 중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된 현장을 방문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 061-830-8700)

글_ **윤중필** 명예기자(형곡초 교사)·**김한나** 명예기자(사창초 교사)

교실 속에서 만나는 과학체험

형곡초, 전교생이 과학에 풍덩 빠지던 날~

온동장에서 로켓날리기

과학토론대회

과학상상화 그리기

과학의 달 4월이 되면 전국 각지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과학탐구 예선 대회를 치른다. 그래서 자연스레 초등학교에서는 3~4월에 자체적으로 과학탐구대회를 진행한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형곡초등학교(교장 신현덕)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19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교실과 다목적실, 운동장 등에서 진행하였다.

대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나아가 미래의 창의융합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과학상상화와 과학독후감, 그리고 메커트로닉스, 항공우주, 과학토론, 융합과학까지 총 여섯 부문 중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참가 종목을 선택하였다. 특히 빠지는 이 하나 없이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여 저마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대회가 더욱 빛났다.

Talk! Talk! 학생 INTERVIEW

여호수아 학생

"평소 접하던 과학실을 떠올리며 미래의 과학실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

김형준 학생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독후감을 쓰기 위해 과학 도서를 많이 읽다보니 과학에 흥미가 생겼어요"

이준우 학생

"생각보다 어렵고 과학 상식도 필요해 당황스러웠지만 융합 요소를 적용하여 만들어보니 재미있었어요"

이혜인 학생

"직접 로켓을 만들어 운동장에서 날려보고, 설명서도 작성하는 과정들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백승린 학생

"과학토론이 딱딱하고 지겨울 줄만 알았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즐거웠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농어촌 학교, 이동과학차와 함께 신기한 과학 여행

과학마술쇼

VR체험 중인 6학년생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전문적인 기자재가 부족해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작은 학교들을 위해 첨단 이동과학차를 이용한 과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지난 3월 26일, 화성 사창초등학교(교장 이강일)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출발한 첨단 이동과학차와 과학마술쇼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날 오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50여 명의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과학마술쇼를 관람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소속 연구원 선생님들이 과학 원리를 응용한 마술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차분하게 과학 원리를 설명해주는 시간이었다. 평소 학교 과학실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액체 질소 실험이나 커다란 공기 대포는 유치원 원아들부터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교사들까지 눈길을 사로잡았다.

과학마술쇼를 보고 난 후에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학년군별로 수준에 맞는 과학체험을 실시했다. 강당에서는 드론 조종을 체험했는데, 드론의 어원과 조종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드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천천히 움직여보며 금방 익힐 수 있던 시간이었다.

6학년 교실에서는 VR체험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VR이 무엇이며, AR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웠다. 이동과학차 모양을 본떠 만든 VR체험용 안경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리 준비해 준 스마트폰 어플을 가지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가상세계 체험을 할 수 있었다. 6학년 한 학생은"이번 VR체험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의 다양성을 체험했고, 집에서도 VR체험용 안경을 사용해 평소에 궁금했던 공룡이나 지구에 대해 더 찾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4학년 교실에서는 스마트펜과 3D프린터의 원리에 대해 배우는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3D펜으로 안경을 만들어보았는데, 나만의 안경 만들기를 통하여 3D프린터를 간접 체험하며 과학 원리를 체험했다.

화성 사창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이번 체험은 경기도교육청이 농어촌 작은 학교의 과학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첨단 이동과학교실' 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도내 72개의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며, 교사들의 과학 교구 활용 방법 연수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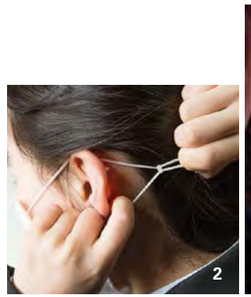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부장 이태헌)은 "과학 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심이나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찾아가는 이동과학차'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_ 양지선 기자

서울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박수빈·배선주 학생

마스크 끈 조절기로 창의경진대회 대상 “창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1 왼쪽부터 대진디자인고 박수빈·배선주 학생
2 두 학생이 고안한 마스크 끈 길이 조절기
3 한혜영 교사는 두 학생의 지도교사로 활약했다.



미세먼지 공습으로 마스크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외출 필수품이 됐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시중에 다양한 마스크가 출시되고 있지만, 대·중·소로 나뉜 사이즈 중 내 얼굴에 꼭 맞는 것을 고르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얼굴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마스크 끈 길이 조절기’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학생들이 있다. 서울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박수빈·배선주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 주최 2018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해당 아이디어로 대상을 탔다. 기존에 끈 조절 클립은 머리 뒤로 묶는 형태여서 머리카락이 집히거나 스타일링이 망가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신 양쪽 끈에 움직이기 쉬우면서 고정도 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길이 조절 부품을 부착하는 것을 생각해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발명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수빈·배선주 학생이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 실내건축디자인과 전공으로 같은 반 친구였던 두 학생은 교내에 붙여진 대회 포스터를 보고 관심이 생겨 도전했다. 평소 창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에서였다. 대상이라는 결과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바로 당사자들이었다고.

박수빈 학생은 “우리 힘으로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편인데, 기계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배선주 학생은 “대상까지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평소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일상 속 불편함 찾는 습관이 아이디어로

차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의 박수빈 학생과 적극적이고 활달한 배선주 학생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며 ‘템포(Tempo)’라는 팀명처럼 한 박자, 한 박자씩 함께 발을 맞춰 나갔다. 자료 조사부터 재질 선택, 형태 디자인, 발표까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지난해 5월 치열한 교내 예선 대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름방학 내내 본선 대회를 위해 디자인 점검과 제품 준비물 공수, 시제품 제작까지 착실히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 본선과 결선 대회를 거쳐 1800: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대회 부상으로 지난 겨울방학 미국 해외연수를 통해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하며 견문을 넓혔고, 지원금을 사용해 마스크 끈 조절기 제품과 디자인의 특허 신청도 완료했다. 한 마스크 업체에서는 끈 조절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학교 측으로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다.

두 학생의 뒤에는 지도교사로 활약한 한혜영 교사의 도움도 있었다. ‘공간지음’이라는 전공 동아리 담당교사였던 한혜영 교사는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수상작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활용법 등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줬다. 한 교사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대회 두 가지가 기능경기대회와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지도교사로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대회에서 수상한다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도 좋지만, 아무나 갖지 못하는 특허권을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다면 참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 교사는 올해 공교롭게도 두 학생의 담임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 있다.

특허 신청 완료…마스크 업체서 연락도

내년이면 고3으로 올라가는 두 학생에게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은 뗄 수 없는 문제다. 건축가를 꿈꾸는 배선주 학생은 1학년 때 교내 건축모형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 배 양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제가 생활할 건물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목표인 박수빈 학생은 특히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박 양은 “반려동물 각각의 성격에 맞는 재료와 디자인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동물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만을 생각했던 이들이지만, 지난해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를 경험한 후 창업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 배선주 학생은 “대상을 타고 나니 창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느낌”이라고 전했다. 박수빈 학생은 “앞으로 발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볼 계획”이라며 “주변에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직접 실행하고 보완해서 키운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_ 양지선 기자

경남 양산희망학교_ 꿈키움 교사연구회

장애 학생 맞춤 소프트웨어 교육 개발 “배움에 빠진 학생들 보며 뿌듯”

드론·코딩 등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의 SW교육을 위해 모인 교사연구회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남 양산희망학교(교장 정문자)의 꿈키움 교사연구회다. 2017년부터 시작된 연구회는 이대송(중등교무부) 교사를 필두로 총 9명의 교사가 참여해 장애 학생의 배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는 일반 교육 자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SW교육은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 필수 교육이 됐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장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꿈키움 교사연구회는 이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장애 학생 SW교육 인식 변화 기여

가장 최근의 성과는 바로 드론을 활용한 SW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활동이다. 꿈키움 교사연구회는 지난해 게임 리터러시 교사연구회에 선정돼 △드론에 대한 이해 △드론 조종 △드론 레이싱 △스크래치 블록코딩을 통한 드론 조종 및 미션 수행 △‘드론블록스(DroneBlocks)’ 앱을 활용한 코딩 △안무에 맞춰 드론 춤추기 등 드론과 블록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15차시 자료를 구성했다.

먼저 드론을 활용한 기존 교수·학습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장애 학생에게 맞도록 교육 내용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드론 레이싱의 경우 복잡한 맵 구성을 간단하게 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교내 SW교육 관련 행사와 ‘2018 SW교육 페스티벌’ 전시 및 체험 부스에서 운영돼 장애 학생을 위한 SW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큰 성과였다. 김보연 교사는 “장애 학생들의 경우 반응이 풍부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을 해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수업에 집중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반 학생들에게도 생소한 드론 교육을 장애 학생에게 맞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터. 개발된 수업 자료 내용을 모두 수행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 외의 학생들이었다. 장애로 인해 특정 기능을 익히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드론 조종과 블록코딩을 전혀 할 수 없는 학생도 있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그때 빛을 발한 것이 바로 협동 학습이었다.

2

3

1 드론교육자료 개발 중인 연구회 교사들
2 ‘2018 SW교육 페스티벌’에 부스 참가한 모습
3 장애물을 통과하는 드론 레이싱 수업

황수연 교사는 “교내 ‘SW교육의 날’ 행사에서 드론 체험 부스를 운영해 드론이 장애물을 통과한 후 착륙지점에 도착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교사 대부분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지체 장애를 가진 중학교 여학생 한 명이 성공했다. 그 학생은 스스로 다른 또래 친구들, 특히 중복장애를 가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종기를 잡고 도와주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드론·코딩 로봇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꿈키움 교사연구회는 드론뿐만 아니라 코딩 로봇을 활용한 SW교육 자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용 콘텐츠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유해왔다. 올해는 코딩 교육용 로봇 대시를 활용한 SW교육 게임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해보는 방식이 아닌, 장애 학생들이 게임 개발자가 되어 게임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지난해 글로벌 코딩 대회인 ‘원더리그’의 국내 예선 대회 특수부문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혜영 교사는 “맵에 장애물을 놓고 이야기를 붙여 간단한 게임 형태를 제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맵을 바다로 설정하고, 장애물인 산호초 뒤에 숨어있는 보물을 터치하라는 미션을 만들어내는 식이다. 교사들의 도움이 있다면 특수학급 학생들도 무리 없이 게임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꿈키움 교사연구회를 이끌어온 이대송 교사는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장애 학생의 배움을 위해 교사 스스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점이 좋았다. 여러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풍성한 나눔교육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선보였을 때 몰입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올해는 교내를 넘어 양산시 특수학급 선생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_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학생 건강권

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성장단계 고려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학교현장 중심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장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학자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가치 있는 지식으로 건강·보건·위생·생명과 직결된 과학적 지식을 강조했다. 그만큼 학생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지만 우리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시력 이상·치아우식 문제가 남아 있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성장기 건강문제는 성인이 된 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 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으로 내실화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도 건강검진 결과 통계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예방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건강서비스 확대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에 힘쓴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확대하고[1],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만 12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등학생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을 지원한다.[2]

공기청정기 설치 등 건강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 위해성 평가방안을 마련한다.[3]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침도 마련·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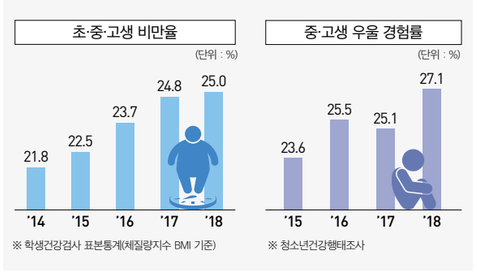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하면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별 맞춤 지원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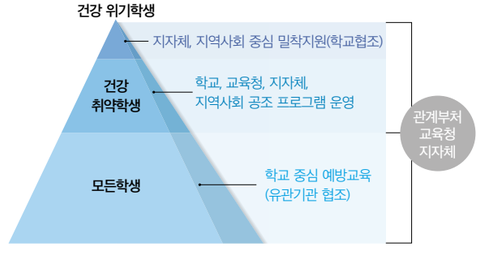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련 기관·단체가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학생 건강문제를 수요자인 학생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포괄적으로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실효성도 기대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림 1] 학생 건강 실태



[그림 2] 대상 학생별 추진내용



1) (‘18) 8개소 → (‘19) 20개소 → (‘20) 20개소 → (‘21) 22개소 → (‘22) 30개소
2) 문자·사이버 상담망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 / 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3) 학교의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학생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기재
과도한 경쟁은 줄이고 신뢰도 높인다

패널
정상명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
유연상 세종 다정초등학교 교사
백희 명예기자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3시
장 소 교육부 회의실
정 리 양지선 기자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올해 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고1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달라지는 학생부 기록과 관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학부모 대표가 교육부 정책 담당자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회 2019년부터 학생부 기재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시죠

정상명 새로운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와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

사회 학생부 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명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됩니다. 둘째,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과 활동 내용을 포함해 총 30자 이내로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은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연상 동아리 활동과 수상경력 기재가 제한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활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교내 수상기록이 폐지되는데, 순위 대신 참가 목적에 의미를 두는 과정적 서술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명 자율동아리 기재를 한정한 것은 무분별한 동아리 가입과 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해당 경험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동아리 활동은 기재 분량 제한이 500자이므로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 1위가 수상경력이었습니다. 대회 참여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수상경력 항목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는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의 긍정적 부분을 제약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백희 네, 봉사활동은 활동 내용을 적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적 채우기 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봉사활동처가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 소위 명문대가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명 지난해 정책숙려제 과정에서 실제로 봉사활동 자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봉사활동 기재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도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특기사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봉사활동도 인정하되, 방과 후나 주말에 이뤄지는 봉사활동을 교사가 평가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백희 수상경력 이외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에도 제한이 생기나요?

정상명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자격증 및 인증사항은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위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학교급·교사별 기재 편차 문제

사회 학생부는 학교 간, 교사 간에도 기재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학생·학부모의 불만 중 하나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학교에 진학 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선생님의 문장력으로 내용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서술식 대신 개조식으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듯한데요.

[표]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학생부 내용 및 적용 시기

추진 내용	적용 시기		
	'19	'20	'21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정비			
• 인적사항의 부모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학적사항과 항목 통합 • 진로희망사항 항목 삭제	초등 일괄 적용(1학년 ~ 6학년) 중·고1	중·고1~2	중·고1~3
•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 (고교)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초등) '수상경력' 항목 삭제 중·고1	중·고1~2	중·고1~3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정비			
• 자율동아리, 소논문,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기재 가능 범위 변경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	초등 일괄 적용(1학년 ~ 6학년) 중·고1	중·고1~2	중·고1~3
•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진로희망상급학교 활용자료로 미제공	중·고1	중·고1~2	중·고1~3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재 분량 축소, 기타			
•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조정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작성·관리 방법 위임	초·중등 전체 학년 일괄 적용 (2019학년도~)		
4.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4,000자 → 2,200자) *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록함			

정상명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된 학생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오해하는 데서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분량이나 문장력 대신 학생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기재 분량을 채우지 못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술식 기재 분량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체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이 합쳐서 4,000자까지 입력 가능했는데 2,2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개조식 작성을 언급하셨는데, 학생부를 개조식으로 기록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연상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마다 다른 내용을 과목별로 전부 작성해야 해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부 기재요령 관련 교사 연수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정상명 학생부 기재요령은 지난 2월 이미 시·도교육청에 파일 형태로 안내되었고, 별도의 기재도움 자료를 올해 8월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학생부 연수 지원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 단위학교가 실시하는 전달연수와 교원 자율연수가 있죠. 먼저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권역별 교사·장학사·강사, 교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초·중등학교로 나뉘어 10차시 원격연수가 보급됩니다. 원격연수는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앞으로도 각종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부 신뢰성 확보 방안

사회 학생부가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그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부 신뢰도와 관련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유연상 학생부 기록의 주체는 물론 교사이지만, 학생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학생을 보는 시각이 교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죠.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상명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교사가 관찰해서 평가한 종합기록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는 학생부를 3번에 걸쳐 교차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과 2학년 학생부를 바꿔 점검하고, 같은 학년에서는 1반과 2반 학생부를 교환해 확인하는 것이죠.

사회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부 관련 신뢰도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를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대학 입학사정관이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교사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백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이 있나요?

정상명 교사들이 과장해서 쓴 학생부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시·도교육청 초·중·고 10,392개교 감사결과 학생부 관련 지적건수가 2,348건을 기록했는데, 그중 사실과 다른 허위기재는 단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허위기재가 학생부,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허위기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고의로 허위기재 시 교사는 최하 해임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부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권역별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탁회의가 진행됩니다. 대입 전형자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바탕으로서의 학생부가 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죠.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학생부 허위 기재와 '셀프 학생부'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끝으로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으로 가장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명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 기재를 위해 학교 밖 활동에 치중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규교육과정 활동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부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_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신설, 교육 전 영역의 비리근절·신뢰회복 추진

국민신고센터 등 제도개선 사항 집중 검토
(가칭)특별감사팀 운영 중대 교육비리 감사·조사
공익신고 창구 일원화, 국민참여 활성화 유도

2019년 2월 4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중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부정응답이 5%p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제도개선 등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문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유출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5주 조사(긍정 30%, 부정 39%) 때 보다 긍정응답은 3%p 상승, 부정응답은 1%p 감소하여 향후 교육신뢰가 저하된 원인과 구조를 밝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 및 신뢰도 높은 정책적 노력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교육부는 신뢰회복 및 각종 교육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교육 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정식부서인 교육신뢰회복담당관으로 개편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는 부총리의 주재로 격주로 운영되며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현황관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상시 점검회의를 통한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그림 참조>.

신뢰회복 및 각종 교육비리 문제 해결 지원

구체적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주요 신뢰회복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국민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진다.

둘째,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감사·조사 및 처분 논의가 진행된다.

중대 교육비리 (예시)

①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②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예 :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신고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③ 채용, 청탁,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④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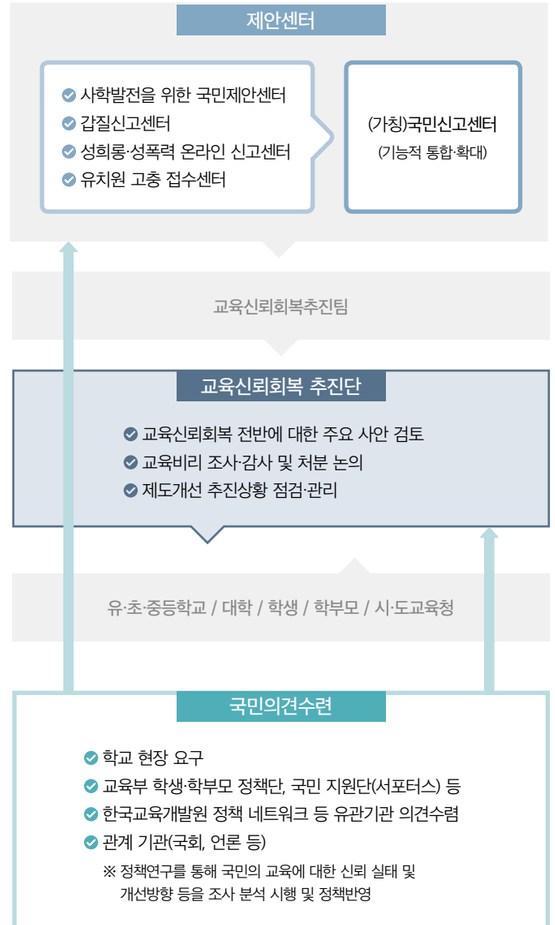
중대 비리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가칭)특별감사팀' 운영을 통해 특별조사 및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그에 따른 처분 논의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신뢰회복 관련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추진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 성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및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로의 도출도 꾀할 것이다. 또한 언론 및 누리소통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KERIS 등 유관기관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가칭)국민신고센터'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생·학부모 등 참여도를 제고하고 교육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신뢰회복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공감대

[그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체계도



3월 21일에 진행된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형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책 고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2019년 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 비리,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안건 내용은 <표>와 같다.

[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안건

차수	안건명
1차 (1.14.)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방안
	• A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특혜의혹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B대학교(전문대), 입시·학사, 법인·회계관리 등 비리의혹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C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관련 보도 내용 및 향후 조치 사항
2차 (1.28.)	•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학교 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D대학교 종합감사)
	•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3차 (2.18.)	•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안)
	•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현황 보고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의제 발굴 프로세스 마련(안)
	• 1월 중 주요 교육비리 제보사항 처리 방안
	• E대학교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 진행 상황
4차 (3.11.)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5차 (3.21.)	• D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C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E대학교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소통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행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발족은 교육부의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사회적 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소통'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또한, 중대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여 향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글_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정책

미래 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서

탈산업사회형 교육시스템으로의 개혁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체제를 보면 지난 1960~80년대 초중반까지는 '서구 선진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주입하여 암기하게 함으로써 서구 선진국을 하루빨리 좇아가야 한다.'를 모토로 했다. 이런 산업사회교육체제는 우리나라의 압축적 경제개발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학습자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최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고위관료와 소수 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생산하면,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집행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교육체제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서구지식 수입 통로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서열화되고, 학생 역시 서구에서 수입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잘 암기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열화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서열경쟁은 공동체적 관계의 중요성과 교수-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측면을 등한시하게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사회교육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부터 1997년 6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5.31 교육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자질을 살리고, 통합적 사고력과 창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탈산업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지시하고 결정하는 단위가 최고 관리자에서 고위관리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보장하여 학습자가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의 삶에 바탕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산업사회의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 하에 멈춰있었다.

교육시스템과 교육 정책적 지향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주입 암기식으로 빨리빨리 통합적 사고력과 창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빨리빨리 공문을 내려 보내 학교에 자율과 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와 같은 자기모순 때문에 교육정책이 희화화되고,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실제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는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공문과 잡무가 증가했으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장애를 초래해 왔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량적 교수평가, 부적절한 대학평가 등으로 인하여 대학구성원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연구, 교육 활동보다는 전시 행정적 보고서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의 실질적인 질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해 왔다.

지속적·안정적 교육정책 추진 기구의 필요성

미래 교육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5.31 교육체제가 안고 있던 교육시스템과 교육 정책적 지향의 불일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탈산업사회형 교육시스템으로의 개혁과 함께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형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가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희화화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헛바퀴 도는 정책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피로감과 사기 저하를 완화해야 한다.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첫째, 대통령 임기에 맞춰진 산업사회 교육정책 주기 5년을 넘어서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종합적인 중장기교육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기구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교육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학교현장, 지역의 현실과 실천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기구와 서구지식 수입 통로에 가까웠던 소수 전문가가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야한다. '국민이 묻고,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 교육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와 자율에 기초한 요구를 수렴하는 교육네트워킹,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국가 수준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자치와 자율에 기초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법안으로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 검토 △교육과정(총론·각론)의 연구·개발·고시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조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교육자치·분권화를 포함한 교육 거버넌스를 감안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은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는 유·초·중등사무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 수준 관리를 요하는 사무(교육 격차 해소, 학생건강과 안정보장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수립될 미래 교육체제

이제 과거 산업화시대의 소수 엘리트 위주 경쟁 교육으로는 지능정보화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미래사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화된 발전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미래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다양한 교육 직업 생애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의 형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과 모험심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보장하여 학습자가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의 삶에 바탕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자각과 민주적 역량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자동화로 사라지는 산업사회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사회 문화적 일자리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생태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과 관계 맺는 능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되고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10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은 아마도 '2030 교육체제'가 될 것이다. 올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2030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 미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과거의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 '국민이 이끌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김진경 의장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 12월경 2기 의장에 취임했다. 시인이면서 중·고교 교사 출신인 김 의장은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글_ 양지선 기자

학력·스펙 대신 실력·열정 중심으로!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개최

1

2

학력과 스펙은 배제하고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인재를 뽑는 채용의 장이 펼쳐졌다.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지난 3월 20일부터 양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것.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기업과 금융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 100여 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실시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취업난을 증명하듯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첫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올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고 국가직·기술직에도 고졸 채용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3 학생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국비유학·글로벌 인턴 기회도 확대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은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며 어떤 부스를 방문할지 고민하거나, 바쁘게 행사장을 누비며 양손에 채용 정보 책자를 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특히 현장 면접에 앞서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한 답변을 읊조리는 지원자들이 눈에 띄었다.

강무진 우리은행 인사부 차장은 “2012년부터 현장 면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지원

3월 20~21일 경기 킨텍스서 열려
대기업·금융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전국 학생·교사·학부모 3만여 명 방문

3

1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현장 **2** 개막식 축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 **3** 현장 면접을 준비 중인 학생들

자를 학교당 2명으로 제한해 선별한 만큼 인상적인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창구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면서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고, 사전에 은행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온 준비된 인재를 원한다.”며 면접 팁을 전수했다.

일학습병행제·선취업 후진학 홍보도 이뤄져

현장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홍보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취업 후 학습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현장에서도 해당 부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밖에도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상담 부스, 면접 시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의상 색을 제안하는 이미지 컨설팅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성화고 부스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조명 만들기, 화성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펼쳐져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췄다. 안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서는 예비 승무원 양성 동아리 ‘퍼스트클래스’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학교 홍보에 나섰다. 3년째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가한다는 이 학교 김영강 교사는 “매년 박람회장이 붐볐지만, 올해 특히 참가 인원이 많은 것 같다.”며 “올해 특성화고 취업 제도가 개선된 만큼 지난해보다 취업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첫날 박람회장 내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고등학교 졸업 후 당연히 대학에 진학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도 각 부처와 협력해 앞으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취업 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INTERVIEW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3학년 김연홍·김태정 학생

“취업, 긴장되지만 꼭 성공할 거예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눈길을 끈 경기국제통상고 김연홍(3학년) 학생은 한눈에 봐도 ‘준비된 지원자’다. 금융권과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김 양은 이번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학교당 2명만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은행 면접을 보게 됐다. “담임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1주일 동안 모의면접을 했어요. 막상 와보니 쟁쟁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긴장되지만, 꼭 합격하고 싶어요.”

한국전력공사 부스에서 1:1 진로상담을 받은 같은 학교 김태정(3학년) 학생은 진지한 태도로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취업 관련 궁금증도 해소했다. 김 군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고 급여도 비교적 높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여러 지사 중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필기시험, 면접 팁도 알게 됐죠. 나중에 채용공고가 뜨면 꼭 지원할 거예요.”

글_ **김성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 대학 평생교육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중장년 또는 노년 만학도의 대학교 입학이 종종 언론에 기사화된다.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진학하는 상급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인구의 고령화 경향에 따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고등 평생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고급 노동력을 지속해서 양성·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등교육은 이제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 변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산업체 위탁 교육, 시간제 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운영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학을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기점으로 한다. 권역별로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선정하고, 대학의 체제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학습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명칭은 바뀌어 왔으나, 성인 학습자에 대한 대학의 개방성을 높이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성인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발전해왔다. 성인 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제도와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 지역 성인 학습자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병행하면서 학령기 학생만을 위한 대학이 아닌 성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기존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7년부터 시작했다. 이전 사업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 형태와 예산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성인학습 수요를 포괄하는 한편, 사업 기간도 기존 1년 단위에서 4년으로 늘려 대학의 체질 개선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2017학년도 성인 학습자 충원율(입학 정원 대비 입학생의 비율)은 55.7%에 불과했다. 대학은 20대가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선입견, 일·학습 병행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되고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2019학년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충원율은 83%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추세와 고등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충원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교육이라는 말에 걸맞게 입학자의 범위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2018학년도 입학 신입생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재직자가 45%에 이르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열정

충원율과 별개로, 대학에 입학한 성인 학습자의 학구열은 뜨겁다. 재직 중, 또는 일상생활 중에 느낀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기회라고 보아 어떤 학생보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의 열정을 알 수 있는 수기를 몇 개 소개한다.

대학 진학보다는 먼저 취업을 생각해 공업고등학교 전자과에 진학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였고, 군 제대 후 지방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대학 진학 준비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래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대학 진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 특성화고 졸업자를 위한 선취업·후학습 대학의 입시요강 설명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신○○

37살에 1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박람회에서 3D 프린터를 보며 물건을 직접 설계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술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일만 하고 큰 목표도 없이 정체된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과 학업에 대한 갈증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아내와 여러 번 대화하고 상의한 끝에 결국 대학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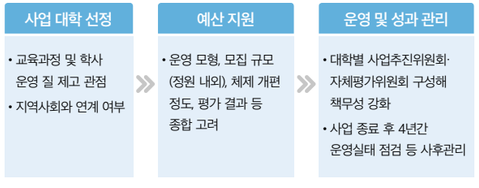
- 한발대학교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경○○

[표] 평생교육체제 지원 대학 규모

구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계
일반대학	5~7교	3~4교	3~4교	3~4교	3~4교	20교 내외

구분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계
전문대학	1~2교	1~2교	1~2교	1~2교	1~2교	6교 내외

[그림] 평생교육체제 지원 시행 과정



고등교육을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대학이 동참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분야 전반으로의 확산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더불어 일·학습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 문화의 변화, 대학 학사제도의 변화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고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적 인식이 보다 빠르게 변화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가 고등교육의 핵심분야로서 조기에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공약 검증 토론회·전자투표 등 확 바뀐 학생회 선거 풍경

"5번과 6번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축구공이나 운동기구를 빌려주어 마음껏 사용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학생회 예산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빌려 간 공을 친구들이 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 빌려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5번 후보)" "저는 잃어버린 학생이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6번 후보)"

운남초등학교(교장 김정희)에서 진행된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와 공약 검증 토론회 모습이다. 음악이 흐르는 점심시간을 공약한 후보에겐 "조용한 점심시간을 원하는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고 결국 후보자는 "일부 장소에만 틀어 주겠다."며 공약을 수정한다.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소견을 발표한 후, 친구들의 치열한 공약 검증 질문 앞에서 진땀을 흘린다.

초등학교의 학생회 선거 모습이 진보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를 듣고 바로 기표소 앞에 줄을 서서 한 표를 행사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 선거가 되고 있다. 유세와 토론을 마친 학생들은 교실에 가서 반별로 전자투표를 한다. 부모님과 함께 밤새 만들던 포스터의 기억도 이제는 추억이 돼 가고 있다. 자신의 공약과 기호만 정해지면 학교 선관위에서 같은 규격으로 인쇄해서 제작해 주기 때문이다.

이권형 운남초 교사는 "지금까지의 학생회 선거가 후보자의 공약을 듣거나 읽기만 하고 투표하는 한 방향의 선거였다면, 앞으론 유권자인 학생들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검증하는 쌍방향의 입체적 선거로 변화시키고 싶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기회도 돼 좋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행복을 담아가는 수학 세상 '거제수학체험센터' 개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3월 14일 거제수학체험센터를 개관했다. 경남 지역에서 5번째로 개관한 체험형 수학교육 공간인 거제수학체험센터는 거제중앙초등학교 별관 7개교실을 고쳐 탄생했다. 초·중등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채움마당(수학체험탐구관) 3실, 배움이룸마당(미래형 수학교실) 2실,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실 1.5실, 교사연구실 0.5실을 갖췄다.

개관식 행사에는 박종훈 교육감, 변광용 거제시장, 조영제 도의회교육부위원장, 옥영문 거제시의회의장,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학 샌드아트&마술 공연, 거제수학체험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매쓰 투어(Math Tour)' 등을 진행했다.

거제수학체험센터는 현재 홈페이지(http://gjedu.gnd.go.kr)를 통해 학교수학체험프로그램, 토요 수학체험프로그램, 학교SW체험프로그램, 토요SW체험프로그램 등의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5월부터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맞춤형 특수교육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오는 2021년까지 특수학교 3곳과 통합유치원 1개원을 추가로 신설한다.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어려움 해소와 장애 특성에 맞는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화하기 위함이다.

이들 4개 학교가 개교하면 기존 7개 학교를 포함하여 충남도내 모든 시 지역에서 특수학교 운영이 이루어져 지역 편중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1시간 30분에 달했던 통학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학생 수도 올해 1,050명(203학급)에서 1,400여 명(265학급)으로 약 33%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장애 유형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신설 학교를 소규모로 짓되, 학교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부여했다. (가칭)천안꿈이룸학교는 직업중점 특수학교로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으로 운영되며 (가칭)당진나래학교는 초·중·고·전공과 통합학교로, (가칭)내포꿈두레학교는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 특성에 맞춰 교육하는 맞춤형 학교로 설계됐다. (가칭)아산월천통합유치원은 유아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장애를 접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지역별, 학교급별, 장애영역별로 고르게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회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미세먼지 많은 날, 체육수업 할 수 있어 신나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 실내 VR 스포츠실이 생겨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신나요."

해남동초등학교(교장 김천옥)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내 스포츠 교실이 생겨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실내 VR 스포츠실 장비는 학생들이 실제로 공을 차거나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체감지형 VR 스포츠 게임과는 차이가 있다. 또 60여 가지 스포츠 종목 콘텐츠를 이용해 맞춤형 체육수업이 가능하고,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준별 수업도 할 수 있다.

김성모(체육부장) 교사는 "작년에 미세먼지와 폭염의 여파로 실내 이론 체육수업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체육수업을 하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참여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NEWS BRIEFING 2019.04.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교육부가 모든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한다.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도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또, 초등 1학년 학생에 집중해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 및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1인당 월 29만원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중학생 31만2000원, 고등학생 32만1000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만3000원이었다. 이 중 국어 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 영어 8만5000원으로 7.2% 증가, 수학 8만3000원으로 5.5% 증가했다. 사회·과학은 7% 증가한 1만2000원이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 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증가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이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중·고생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운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을 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올해 1,500명을 선발한다. 특히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장학 사업에 최초로 활용해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매월 30~50만 원(학교급별 차등) 지원한다. 활동 기간 동안 1:1 지도, 진로체험 활동, 진로상담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가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교육부가 '학부모온(On)누리(www.parents.go.kr)'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학부모온(On)누리는 PC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녀교육에 필요한 온라인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분야별 검색, 주제별 추천 과정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화면은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뉴스, 전자책(e-book), 진로정보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제공되는 동영상의 화질도 대폭 개선됐다. PC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읽어 볼 수 있는 전자책 교육 자료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6개국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글_ 탁동철 강원 조산초등학교 교사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산개구리 호르르

버드나무에 연둣빛 물오르고 산개구리 호르르, 새곰밭집 노인은 밭고랑을 캔다. 우리 아이들도 줄줄이 일어서는 봄을 맞이해야지. 우리 반 다섯 아이 중에 현재 유도 선수가 셋, 한때 유도부였던 아이가 둘인데 다들 체격 좋고 성격도 좋아서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들어준다. 스마트폰 게임 적당히 하라 하면 적당히 하는 척해주고, 축구하자 하면 축구하고, 노래하자 하면 변성기 낮은음으로 느릿느릿 노래한다.

교실 창턱에 손 짚고 서서 운동장에 파랗게 돋아나는 잔디와 소나무 숲 위를 날아가는 까마귀 두 마리를 바라보다가 고개 돌려 아이들한테 말했다.

"오늘 봄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봄. 그 자리 그 순간으로 가서."

다들 별 불만 없이 책상 서랍에서 <새롭게 하기> 공책을 꺼내 한두 줄 적는다. 한 자리에 머물러 살핀 것이 있는지, 더 다가가서 들여다본 것은 무엇인지. 지금 찾을게요, 하며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갔다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겨울을 지나 봄 춤을 추다

아이들 발표 듣고, 나도 공책에 '개구리가 알 풀었다. 물도랑에 알 뭉텅이가 뭉텅뭉텅.' 이렇게 쓴 것을 읽고, 다시 말을 이었다.

"춤을 출 건데. 봄 춤."

마뜩잖은 얼굴로 "아흐으…… 에히이……." 하면서도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 빙 둘러선다.

어제는 윤서가 만든 '목련꽃 털썩' 춤을 췄으니까 오늘은 성원이 차례다. 성원이가 우물쭈물 부끄러워하면서도 두 팔 벌려 올리며

"뒷산에."

나랑 아이들이 성원이 몸짓을 따라 했다. 동작을 크게, 아주 크게. 두 팔을 활짝 벌렸다가 산처럼 모으며 "뒷산에서……." 하나 둘 셋 둘둘 셋.

"캭캭!"

두 손을 헤엄치듯 휘저으며 앞으로 앞으로. 우리도 다 같이 캭캭, 하며 하나 둘 셋 둘둘 셋 팔을 저어 앞으로.

"검은 새가 캭캭"

허공을 헤엄치며 하늘 멀리 쭉쭉. 박자 넣어 발걸음 떼고, 움직임 작게 크게 빠르게 느리게 하며 오늘 아침 '캭캭 춤' 완성. 분위기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서 틀어놓고 리듬에 맞추어 하나 둘 셋 캭캭. 울어대는 새가 되었다가 산을 높게 세우고 날아가는 검은 새가 되어 교실을 걷고 휘저으며 한바탕 일어서는 봄이 되었다.

'해가 쨍쨍'이나 '꽃이 활짝' '바람 살랑살랑' 따위처럼 굳어진 말로 채워진 봄은 우리 것 아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래 머무르고 한 발 더 다가가고 속으로 파고들며 하루하루 새롭게 만나는 봄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올 것이다. 아니, 더 나가야지. 귀로, 손으로, 냄새로, 맛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세상을 처음 만난 듯 만나야지.

귀로, 손으로, 발로 만나는 봄

자리에 앉아 숨을 가라앉히며 아이들한테 물었다.

"개구리 소리 들었어?"

한 명은 들어봤다 하고, 다른 아이들은 못 들었다 한다. 바다가 가깝지만 마을에 논이 있고 농사짓는 이웃이 있으니 개구리가 안 울어 줄 리 없다. 누군가 저게 개구리야, 하고 말해 준 사람이 없었겠지. 관심 없으면 목 위에 머리 있고 머리 위에 하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가 엊저녁에 알이 뭉텅뭉텅 뜬 도랑물 둑에 쭈그리고 앉아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호르르 호르르르……."

산개구리 울음이 교실에 퍼졌다. 아이들이 핸드폰 녹음기 쪽으로 귀를 바짝 세웠다.

"어떻게 들려?"

저마다 자기가 들은 대로 소리를 냈다.

"꼬르륵꼬르륵요." "꾸루룩꾸루룩" "깨꾸륵깨꾸륵"

아이들 말을 칠판에 적었다. 개구리 개굴, 개는 멍멍, 문은 드르륵, 이 따위만 깨버려도 어디냐.

"눈 감아. 아, 입 벌려."

벌린 입들에 오늘 아침 학교 오며 꺾은 나뭇가지를 똑똑 잘라서 넣어주었다.

"무슨 맛이 나?" "매운맛이요." "화장품 맛."

"이런 맛 나는 나무가 뒤뜰에 있거든. 가서 찾아."

아이들이 뒤뜰 노란 생강나무 꽃 아래로 모였다. 내가 먼저 양말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들도 양말을 벗었다.

"지금부터 봄을 만날 거야. 귀로 콧구멍으로 손바닥 발바닥으로."

수면 안대로 눈 가리고, 양말 벗고, 앞사람 어깨 꼭 잡고 칙칙폭폭 줄줄이 걸었다. 눈을 뜬 내가 앞장섰다.

"천천히. 나무에 머리 박으면 나무가 아프잖아."

맨발로 디디니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다. 솔잎을 밟을 때는 따가워서 절절매고, 햇빛 닿는 모래밭을 지날 때는 "따뜻해." 새로 돋아나는 풀 무더기를 지날 때는 "차가워." 한다. 손 내밀어 나무 둥치 만지고, 멈춰 서서 소리가 오는 쪽으로 귀 기울였다. 이곳에서 저곳까지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아름다운가. 이곳이 신비하지 않으면 지구 끝 세상 어디도 신비한 곳은 없는 것. 오늘 만나는 봄이 두근거려야 내일 만나는 봄도 그 다음날 만나는 봄도 두근거리지. 직박구리 소리 킥키웃, 곤줄박이 찝찌루루, 차 소리, 가랑잎 바스락 소리, 수돗가에 수돗물 쫄쫄 쪼르륵. 코 벌름벌름 귀 쫑긋 세우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봄이다. 물오르는 버드나무도 봄, 노란 생강나무꽃도 봄. 새가 울고 바람 사르락 풀싹을 깨우고 우리는 걷는다. 봄이 걷는다.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글_ **김서규** 경기대 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전 유신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환청이 들리는 아이

학교에서 환청을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실에서 눈에 띄는 정신과적 소동을 벌이는 아이의 지도 방안을 학교상담 전문가가 제시한다.

문제

고등학교 1학년인 경훈이는 아이들이 등 뒤에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키 크고 농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에이, 뭣 같은 놈'이라고 욕하자 견딜 수 없었다. 경훈은 전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고성능 녹음기로 그들의 욕설을 녹음했다. 충분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경훈은 담임선생님과 학생과 선생님께 그들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급의 아이들이 줄줄이 학생과에 소환되어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경훈은 격분해 녹음기를 틀며 "들어보세요! 증거가 있어요!"라고 해서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나 **들리는 것은 잡음뿐이었다.** 녹음이 잘못된 걸까? 그때 경훈이가 말했다. "들어보세요. 복도에서 저를 욕하잖아요." 아니,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계속 들린다고 우겼고, 그제야 선생님들은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아차려 부모님께 경훈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진단

정신과에서는 경훈에게 원인 미상의 망상과 환청이 있다는 진단을 했다. 그러나 경훈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이 상담 선생님께 호소했다. "경훈이는 계속 아이들이 자기를 욕했다고 신고해요. 두 달 동안 학급 아이들 절반이 학생과에 조사받으러 불려갔어요. 그 애 녹음기는 3m 밖에서도 사람 음성을 선택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아이들끼리 가끔 욕할 때도 있고, 실제로 경훈에게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모조리 녹음해서 자기한테 한 욕이라고 신고하니 진위를 가리기도 곤란하고 실제로 처벌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급 분위기는 엉망이고 저도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아요." "부모님께 대안학교나 휴학을 권유해보시지 그랬어요?" "부모님은 아이의 증상을 알면서도 이 학교에서 졸업시키겠다고 해요. 학급이 망가져도 내 자식이 우선이라는데……. 어떡하죠?"

지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경훈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경훈아, 뭘 도와줄까?" 경훈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애들이 저를 욕해요. 들어보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예의 그 녹음기를 틀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드는 소리뿐. "아이, 좀 잘하지 그랬니? 음성이 불투명한데." 경훈이가 신이 나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녹음하려고 해요. 옆 분단 아이가 몰래 욕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녹음을 할 건데?" "걔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다 그 애가 우연히 그걸 만지면 들킬 텐데." 경훈이 움찔하더니 "그럼 책상 밑에 접착테이프로 붙여놓을게요."라고 했다. "그게 낫겠다. 그런데 녹음하면 그 애들도 욕했으니까 처벌받겠지만, **너도 남의 말을 불법으로 수업 시간에 녹음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어.** 이건 어떻게 할 거니?" 경훈이 헉하고 말문이 막히더니 "사실 저도 그게 조마조마해요. 아직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누군가 따지면 저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수시지원을 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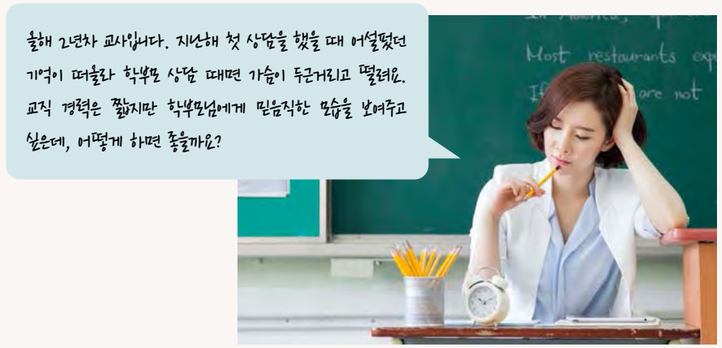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너를 욕하는 아이들을 몰래 녹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참고 봐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하겠니?" 경훈이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다. "후자요. 억울하지만 참아야겠네요."

경훈은 그 후 녹음하지도, 아이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환청을 완치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환청을 무시할 수 있었다. 망상이든 환청이든 잘 도와주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의지마저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의사가 약을, 학교가 지원을, 부모가 사랑을 보이면 그 관심의 동심원에 놓인 아이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글_ **허승환** 서울강일초등학교 교사

가깝고도 먼 학부모 상담!



같은 편인 듯하면서도 자식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돌변하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보아 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흔히 '학부모님'을 일컬어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사는 그 과정 중 1년 동안 아이를 바람직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내기 교사일수록 학부모와 엮이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1. 학부모를 한 아이의 전문가로 인정하기

교사가 아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고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등 아이가 자라오면서 형성된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의 미래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할 사람도 역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2. '학업 상담'보다 '학교 적응' 관련 상담하기

처음 상담할 때에 교사나 학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급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따뜻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최근에 치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다간 학부모상담의 시작부터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삭막하고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게 되기 쉽습니다.

3. 학부모 상담 때 효과적인 세 마디

교사들에게는 학부모 상담이 학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짧은 만남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보면, 자칫 교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학부모님의 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교사도 있습니다. '다음엔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에 상담에 집중하지 못해 공감해주지 못하는 선생님께 실망하는 학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담은 한 마디가 필요합니다.

① "학교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학부모 상담을 신청하고 학교에 오는 것은 어떤 학부모님에겐 시간을 내어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학부모상담에 오기 위해 애쓴 노력을 인정해주며 시작합시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② "그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 오셨나요?"

"선생님, 우리 경철이가 주의집중도 못하고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무언가 전문가의 입장으로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만 복잡할 뿐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교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님이 해온 노력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경우, 지금의 자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교사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 격려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무어라 생각하세요?" 교사의 평가보다 학부모님 스스로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합니다.

③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는 수학이 약한데 학원에 다녀야 할까요?" 학부모님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자녀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로 비춰지고 싶어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인지, 정말 답을 구하는 질문인지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답을 위해 쏟는 선생님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열린 질문은 학부모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상담 후 결과 반영하기

학부모상담의 결과는 꼭 기록해 두고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상담을 해치워야할 일이 아니라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온전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 손잡을 때, 교직은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허승환 선생님은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현재 강일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0년 교육부문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교육자료 공유사이트 예은이네 운영자이기도 하다. 『허쌤의 학급경영코칭』, 『허쌤의 수업놀이』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글_ 김석수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교육계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제대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성을 다해 비판하고 성찰하는 질문의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탈권위' 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압축근대화와 더불어 작동해온 강한 국가명령 사회를 빠져나와 저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로 이동해온 역사적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적 소유에서 찾는 시장 중심 사회로의 진입은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전통적 권위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사이버 세계의 지배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지식의 대중화 및 지식 주체의 다변화는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전문가와 지식인도 더는 특별한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만 겪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전 지구적 현상이기도 하다. 탈권위는 중심과 주변, 주체와 대상으로 가르는 기존의 모든 차별 구도를 와해시키려는 오늘의 해체주의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1세기 해체주의는 보편적 답이나 표준적 기준에 입각한 권위의 확립을 지배 권력의 구축으로 해석하며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

갑질·혐오사회는 탈권위 현상의 단면

사실 권위에 대한 해체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이미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는 형이상학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특정 지배체계를 구축해온 전통과 권위를 청산하고, 오로지 인간 자신의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근대 시민혁명과 더불어 출현한 자유주의적 삶은 전통과 권위를 구시대의 유산으로 처리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탈권위 현상도 이런 흐름의 심화·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사회는 서구보다 더 급진적인 형태로 탈권위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근자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 현상 역시 이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이 인간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위(auctoritas)'란 본래 '원제작자'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auctor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를 최초로 이루어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곤 한다. 이 점에서 권위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권위는 상대의 인정과 수용이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소통과 이해의 과정을 요구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전달은 결코 권위를 낳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한 혹독한 질타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명령에 기초한 권력사회에 대한 저항이 아닐 수 없다. 권위를 권력으로 오용하거나 권력을 권위로 위장하는 기만에서는 그 어떤 온전한 소통도 이해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인정과 수용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수평적 소통·이해와 인정·수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찰하는 질문 문화로 진정한 교권 회복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위 상실은 소통이 아니라 명령이, 인정이 아니라 강압이 낳은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교육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답을 전하고 수용하기만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교권은 교육자의 권력이 아니라 권위여야 한다. 이 권위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소통적 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달식 교육을 넘어 대화식 교육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의 진정한 권위는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진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제 우리의 교육계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제대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성을 다해 비판하고 성찰하는 질문의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진지한 질문은 서로의 무지(無知)를 자각하게 하는 과정이자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일구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권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갑질을 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회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철학자 아렌트가 권위를 청산하려는 서구 근대 자유주의가 이기주의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듯이, 우리의 탈권위주의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위와 권력의 악순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소크라테스적 질문 정신으로 돌아가 비난이 아니라 비판에, 공격이 아니라 소통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담당해야 할 근본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답 전달 중심의 암기교육을 넘어 진지하게 질문하고 근원적으로 사유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질문에 개방된 소통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도 참된 권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권위주의와 냉소주의라는 어두운 터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_ **강지영** 명예기자(수필가) 사진_ **김경수** 포토그래퍼

1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푸른 물결 머금은 노란 유채꽃의 땅, 삼척

퍼런 물결과 나란히 달려보자. 바다의 넘실거림을 눈에 담아보자. 파도 소리를 빗자루 삼아 귀에 낀 먼지를 닦아내 보자. 바다의 너른 품이 필요한 시간, 수평선을 찾아 여행길에 오른다. 푸르디푸른 바다와 누런 꽃들판과 은빛 해변이 눈에 아른거린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나를 동여매고 있던 끈을 풀고 움츠리고 있던 어깨를 펴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고 삼척을 찾는다.

봄 기운 충만한 맹방 유채꽃 축제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바다열차에 몸을 싣는다. 해변을 마주 보도록 배치해둔 의자에 앉는다. 돌고래 그림으로 장식된 기차의 엔진소리와 함께 52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퍼런 물과 백사장, 터널과 방파제가 차례차례 눈을 채워온다.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바다를 따라 해변을 걷듯 기찻길을 달린다. 어느새 물결은 길이 되어 있다. 나는 '갈매기의 꿈' 속 조나단이 되어 바다 위를 떠돈다. 쉼 없이 가는 시간처럼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삶 또한 그와 다르지 않으리라는 깨우침이 가슴을 채워온다.

유채꽃이 만발해 있는 맹방으로 간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맹방 유채꽃 축제는 '봄 가득 희망 가득'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손님들을 맞이한다. 샛노란 들을 그리며 맹방 유채꽃 축제장에 들어선다. 바다와 벚꽃을 액자 삼아 땅을 수놓고 있는 자연의 걸작이 여행객을 반겨준다. 모네가 살아 돌아온다고 이 광경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을까? 꽃물결로 지평선을 물들인 유채밭을 보며 생각한다. 3월과 4월의 충만함에 생기를 더해주는 이 꽃의 캔버스는 들판이어야 한다고. 꽃길을 걷는다. 무릎을 간질이는 꽃의 몸부림과 끝이 보이지 않는 노란 벌판과 고명처럼 흩날리는 벚꽃. 노랗고 하얀 꽃이 만발해 있는 이곳은 꿈의 터전이다. 사방이 노오란 색으로 물든 이 드넓은 땅이 꿈을 위한, 내일을 향한 바탕색이 되어 가슴을 채워온다. 유채꽃과 벚꽃이

남긴 먹먹함을 머금고 맹방 해변으로 향한다. 옥빛을 준비해 둔 바다가 기다렸다는 듯 길손의 떨리는 가슴을 어루만진다.

바다와 더불어 달리는 해양 레일바이크

길은 곰솔과 기암괴석, 바다와 더불어 달릴 수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 정거장으로 이어진다. 궁촌 정거장에서 황영조 공원을 거쳐 용화 정거장에 이르는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동해 해안선을 따라 5.4킬로미터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에 몸을 싣는다. 바닷바람이 볼을 쓸고 가기 무섭게 레일 양쪽에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이 봄을 전해온다. 무채색 겨울에 외로이 녹음을 품고 있던 솔잎이 봄이 왔노라며 어깨를 두드린다. 하늘은 높고 레일바이크는 천천히 달리고 봄을 맞은 자연은 수다쟁이가 되어 쉼 없이 귀를 간질인다. 빛으로 장식된 굴을 지난다. 물감이 되어 어둠을 채색하는 조명을 보며 새삼 깨닫는다. 암흑을 밝히는 미미한 빛이 아닌, 어둠을 물들이는 빛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변 위 자리한 명승지, 죽서루

도로를 달리며 삼척이 부쳐온 찬란한 봄을 되뇐다. 겨울 찬바람이 봄 곁을 서성이기에 봄의 따사로움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일 터. 허허했던 가슴을 봄볕으로 물들이며 죽서루로 간다.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등과 함께 관동팔경 중 하나로 불리는 삼척의 죽서루는 고려 충렬왕 때의 이승휴가 창건, 태종 3년 삼척 부사 김효손이 새롭게 다시 만든 누각이다. 이 누각은 9개 기둥을 자연석 위에, 8개 기둥을 석초(石礎) 위에 세워 만든 곳이라 하여 건축사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죽서루에 오른다. 지붕 아래 놓인 편액 속 시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지런히 쓰인 글을 벗 삼아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과 첨재 강세황의 죽서루를 떠올린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팔작지붕 누각. 대가라 하여 이 풍광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으랴만, 송강 정철의 말대로 '풍경은 볼수록 싫증 나지 않으니' 획을 더하는 게 사족임을 알면서도 손을 움

2 죽서루

3 촛대바위가 보이는 해안 산책길

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자연이리라.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했던 문무왕이 지나온 바위 구멍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용문바위 앞에 선다. 복을 기원하기도 한다는 용문 바위를 지나며 누군가의 어둠을 물들이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는 한해이기를 기도한다.

신라 장군 이름 딴 이사부 사자공원

삼척이 전해준 봄 내음이 쓸려가지 않게 삼척에서의 시간을 반추해 두어야겠다. 여정의 끝은 이사부 사자공원이다. 사색과 산책을 통해 삼척을 머금어 둘 수 있는 곳으로는 더 없이 좋은 장소이리라. 이곳은 우산국을 정벌한 신라 이사부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곳이다. 지증왕 505년, 이사부는 우산국 복속 명을 받고 정벌 계획을 세운다. 드센 우산국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이사부는 나무 사자를 전투용 배에 싣고 섬으로 간다. 이사부는 모형을 진짜 사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를 풀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적군을 꿰뚫어 본 이사부의 전략은 우산국인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든다. 이사부의 공적을 기념해 삼척시는 이사부 거리와 이사부 사자공원을 조성, 곳곳에 사자 조형물을 설치해두었다.

4 이사부 장군과 나무 사자 조형물

물고기 조형물로 장식된 천국의 계단을 앞두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아찔한 계단 끝에 전망대가 있다. 오른 계단이 더해진 만큼 호흡은 거칠어진다. 탁한 날숨을 타고 물고기는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형상이 되어 눈에 맺힌다. 조형물 물고기와의 동행 끝, 계단 끝에 이른다. 거친 숨을 뱉으며 뒤를 돌아본다. 눈을 채워오는 푸른 봄 물결을 보며 생각한다.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가파른 길이었지만 계단을 올랐기에 내려다볼 때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극기의 인내 끝에 맛보는 트임이 남기는 카타르시스. 이것이 높디높은 이 계단이 서툰 여행객에게 남기는 선물일지 모른다. 전망대에 들어가 이사부 장군의 초상화를 만난다.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다. 사자상들을 감상한 후 멀리 있는 독도를 눈에 담는다. 아프고 시린 역사가 서려 있기에 더 굳건해야만 하는 섬의 여운을 곱씹으며 전망대를 나온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쓸고 간다. 푸른 바람을 맞고 앉아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멍하니 내려다본다. 나조차 알아채지 못한 나를 비춰내는 거울이 바다가 아닐까.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해안 산책길을 지나온다. 석양 진 해변에 앉아 해안을 눈에 담는다. 건너편 촛대바위를 보며 유채꽃과 벚꽃, 죽서루의 풍광을 바다에 띄워본다. 찬란하기에 가슴 시리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알려준 삼척의 훈기가 노을이 되어 번져온다.

3월경 강원도의 봄소식을 전하고자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4월초 강원도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도 있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면에 담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편집자주>

글_ **고영성** 명예기자

진원동초, '학생자치 우리가 만들어요'

전라남도 진원동초등학교(교장 강경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 다모임을 실시한다. 전교생 다모임은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안건 토의 및 생일축하 파티가 매월 열린다.

진원동초 다모임은 존중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진원동초 학생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자리이다.

올해 첫 다모임은 전교학생회 임원들의 다짐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년에 상관없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학교 안에서는 전화통화를 할 때만 핸드폰을 사용하자'라는 공통된 규칙을 정했다.

안건 토의 후 학생회 임원들은 '지구야 같이 놀자'라는 환경사랑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요거트를 먹을 때는 플라스틱 숟가락 대신 개인용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자는 작은 의견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환경오염에 있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후 전교생에게 나무 숟가락을 나눠주고, 함께 환경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올해 두 번째 다모임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생일파티를 실시했다. 2주 전부터 친구들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담아 영상으로 만들고, 생일 축하 편지를 수거하며 생일잔치 계획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였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동안 생일잔치를 준비한 친구들은 케이크에 불을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생일자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였다.

강경자 교장은 "매달 학생 다모임 시간을 통해서 자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다모임을 통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의 기획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글_ **김민경** 명예기자

'맞춤형 칫솔질 교육'으로 치아 건강을 지켜요!

지산초등학교(교장 권명숙)는 지난 4월 2일 구미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전교생 대상 충치 예방 및 올바른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 도포를 시행하였다. 담당 의사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 후, 불소를 도포하여 학생들의 치아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학생들은 치아 모형으로 눈높이에 맞는 칫솔질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웠다. 이어서 진행된 불소 도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치아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면서 치아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글_ **이수진** 명예기자

대구어린이기자단 발대식, "정당한 기자가 되고 싶어요"

대구어린이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3월 23일대구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열렸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어린이기자단은 대구시에서 매년 선정하여 올해 제4기 기자단을 임명했다. 대구어린이기자단의 역할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것. 또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즐길 수 있는 교육, 문화, 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나 글쓰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신문으로 발간하게 된다.

제4기 대구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서는 키즈크리에이터 나하은 양을 대구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이 있었다. 특히 30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기자단 모두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기자증을 수여받았다. 어린이기자단은 네 명씩 줄을 지어 무대로 올라가서 각자의 기자증을 목에 걸었다. 임명된 4기 어린이기자단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였다.

사회자가 한 어린이기자에게 "어떤 기자가 되고 싶나요?"라고 물었고, 질문을 받은 어린이기자는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정당한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매스컴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사가 보도되는 요즘이다. 정당한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글_ **김말선** 명예기자

어린이 프리마켓, 내 생애 첫 셀러(seller)!

내 생애 첫 프리마켓을 운영하게 되는 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주도 프리마켓이다. 부산 금곡동 하나로클럽 3층에는 하나로문화센터가 있다. 어린이프리마켓은 회원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사로 마련하였다. 어린이들이 직접 셀러로 참여하여 사고, 팔고, 나누는 어린이 프리마켓이다.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기회와 재활용품을 통해 사용하던 물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어린이가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대상이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다. 참여 물품은 문구, 장난감, 신발, 어린이 의류, 도서, 스티커, 애장품인 액자, 악세서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 어린이 셀러는 "판매장 물건을 준비하는 과정에 소중한 물건,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소장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소중한 물건인 만큼 물건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가져왔다."고 한다. 참가 희망하는 어린이·어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흥정'까지 아이가 주도하는 활동이 이색적이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에게 자립심·경제관념·재활용 자원, 시장경제를 체험하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글_ **이하성** 명예기자

시골학교에 부는 새바람, 용덕초 BIG밴드 결성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용덕초등학교(교장 이효선)에서 일과가 끝이 나면 어디에선가 북소리, 기타 소리, 색소폰 소리, 피아노 소리 등이 들린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용덕초는 학생 수가 36명인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2019 예술 꽃 씨앗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꿈과 끼를 찾는 놀이터(Beautiful), 지혜를 키우는 채움터(Imagination), 함께 배려하며 사랑하는 어울림 터(Grow up)' BIG밴드를 결성해 지난 3월 21일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밴드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밴드로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배울 수 있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_ **홍순선** 명예기자

'괜찮아 위로 프로젝트' 우리를 위로하는 허그데이

Wee센터 전문 상담인력과 학교 교사들이 따뜻한 포옹과 하이파이브로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며 위로와 관심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천교육지원청 Wee지원센터는 지난 3월 13일과 22일 '괜찮아 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율곡고, 김천초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캐릭터복장의 전문상담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였다. 안아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초. 포옹은 추운 감기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며, 기분전환에 효과가 있다.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한지 웃고만 있더니 이내 달려와 안긴다. 포옹으로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_ **김경민** 명예기자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한글'

'국립한글박물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용산구 서빙고에서 문을 열었다. 상시전시와 특별기획전을 함께 전시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글에 대한 이야기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테마전으로 <독립운동의 힘, 한글>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상설 전시한다.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님과 신입생들은 이곳에서 지난 3월 23일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와 베트남, 중국 등에서 참가한 신입생 40여 명이 앞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한글'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한글박물관에서 한글이 걸어온 길, 한글의 특징, 외국어로서 한글의 의미 등 전시를 통해 알지 못했던 '한글'의 숭고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글_ **권유진** 명예기자

외국인에게 배우는 세계 문화교실 속으로 GO~ GO~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 속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다.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에서는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문화교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을 1998년부터 진행해왔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문화교류 자원활동가(Cultural Exchange Volunteer)와 내국인 한국어 통역 자원활동가 (Korean Interpretation Volunteer)가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한다. 세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문화를 배우고 영어로 수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교류 학교에 신청하여 선정된 초·중·고교 교실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진처럼 아제르바이젠 활동가 니하트가 아제르바이젠의 전통의상, 차 시음, 게임 등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니하트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에도 유창했고 자신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평소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활동가가 영어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니 피상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었다. 활동하는 외국인 활동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집된다. 다양하고 더욱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알리고 싶어 하는 자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국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많이 경험해보면 좋겠다.

글_ **양지훈** 명예기자

Let's Go! '멘토리야구단'

지난 3월 27일 (재)양준혁야구재단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에는 안산공업고등학교(교장 강병옥) 희망나눔투게더반 동아리 학생 7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발대식은 희망나눔투게더반 동아리 학생들이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위한 시간이었다.

글_ **조건희** 명예기자

꿈을 키우는 대안교육, 오디세이학교

고대 그리스 저서 중 '오디세이'라는 모험서가 있다.

'오디세이'는 지혜로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의 모험서이다. 그가 트로이 전쟁 후 귀향하기까지 겪은 온갖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오디세우스처럼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해 모험을 하는 학교가 있다. 바로 '오디세이학교'이다. 오디세이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교육한다.

오디세이학교는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보통교과 과정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준다. 즉, 학교는 학생이 미래를 설계하는 길을 동행하며 진행해주는 역할이다. 학생들은 일반고, 자공고에 학적을 둔 상태이다. 따라서 1년의 배움 후엔 원적교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오디세이학교의 수업은 많은 여행과 책 만들기, 발표회, 더하여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방법들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다. 또한 본질적인 지식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상호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지식 역시도 습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부도 하는 것이다.

글_ **남경아** 명예기자

디지털 원주민, '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 그들은 누구인가?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에 걸쳐 출생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을 일컫는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과 IT(정보기술) 등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왔고, TV·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동영상 콘텐츠를 더 선호한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여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함께 담당한다. 이들은 신기술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를 소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놀이도 공부도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와 기기를 접하고 소비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온라인 공간만을 선호할 것 같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보고서>에서는 Z세대가 동료와의 의사소통에서 직접적인 대면대화(43%)를 가장 선호하고 '메신저앱'을 통한 소통(12%)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보고서 <이레귤러 리포트2>역시 Z세대를 규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인 세대로 표현한다. 이런 다양한 견해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청년세대 중 특히 Z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욜로(인생은 한 번뿐 yolo)'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소비여력이 크지 않은 이들에게서 최대한 손실을 피하고 확실한 이득을 뽑아내자는 마케팅 측면의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글_ **유성목** 명예기자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산골 속 작은 학교 아이들

'첩첩산중이란 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실감이 날 정도로 추곡초등학교(교장 최종태)는 첩첩산중에 자리하고 있는 산골 속 작은 학교다. 추곡초는 춘천 외곽에 위치한 학교인데 이 곳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춘천에서 30여 킬로미터 남짓 떨어져 있지만 자동차로 40여 분을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다. 먼저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긴 배후령터널을 지나 다시 화천군의 땅을 지난 다음, 다시 추곡터널을 지나서야 산중턱에 위치한 산골학교인 추곡초등학교에 다다를 수 있다. 학교 입구에는 하늘색 바탕의 '행복한학교 추곡초등학교'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흙냄새와 물소리,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상큼한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교문 앞에 다가서자 수많은 오색의 바람개비가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듯 힘차게 돈다.

현관문을 열고 실내화를 갈아 신기 위해 신발장을 여는데 신발장 곳곳에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시구가 적혀있었다.

그대 미소로 꽃이 피어나고 / 그대에게 다시 향기로 번지다 / 마음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 꽃 보다 아름다운 너

총 14개의 선생님 신발장에는 14개의 시구가 이같이 적혀 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대'는 자신의 신발장이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귀띔해 주었다.

아이들처럼 수줍게 웃으며 자칭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 전문가라고 말하는 최종태 교장 선생님.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의 손길이 학교 곳곳에 배어있다. 유치원생 2명을 포함해 전교생이 16명인 이 학교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다양한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몸소 배우며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태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큰 도시에 비해 외부교육이 없는 것과 아이들의 발표력이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꾸준한 독서습관과 독서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놓고 교장실에서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해오고 있다.

글_ **손대환** 명예기자

용남고, 역사의 길을 따라 미래를 열다

용남고등학교(교장 이옥주)는 지난 4월 1일 학생, 교직원 920명이 함께 계룡시 일원에서 2019학년도 용솟음 향토순례 걷기 대행진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번 걷기 대행진은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계룡지역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미년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평화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 및 애향심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사전활동으로 기미년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시화·디자인·만화 그리기', '나의 독립 영웅에게 편지쓰기' 대회를 실시했다. 당일 전교생이 학교에서 두계천을 따라 걸어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용남고 학생회 및 역지사지 동아리 40명의 학생들이 "역사의 길을 따라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플레시몹을 펼쳐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찾아 나가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학습 동기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잠자는 교실'이라는 오명을 벗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니터단_ 도예희

꿈이 영그는 현장_ 경북 울진고등학교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보다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방법적 측면이나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마침 3월호에 소개되어서 좋았다. '너와 내가 만드는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슬로건처럼 학생자율활동을 기반으로 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점점 주도권을 줘 수업에서 능동자가 되도록 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겠다. 모니터단_ 김도연

아이의 다락방_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영희 학급에선 새 학기에 친구를 사귀는 데 고충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담 선생님이 영희네 학급의 쉬는 쉬간과 수업 시간 행동을 녹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희가 자기도 모르게 남을 툉겨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담 선생님이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관찰력과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니터단_ 김고운

ENENT

4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돌봄교실'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4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임은혜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4길
이현정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46번길
김연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70번길

발행일 2019년 4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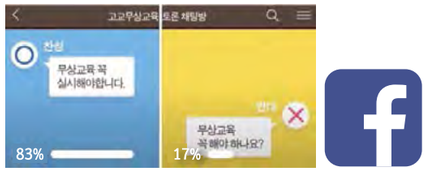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양지선
사 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학부모 교육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
찬성·반대 온라인 토론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9.2.21 ~ 2019.3.3 / 페이스북 활용)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와 댓글토론 결과,
총 투표수 2,043표 중,
찬성은 83%, 반대는 1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561개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교육 정책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